

심 치 열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사무가 <바리공주> 교육 방안  
-7차, 2009개정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현

서사무가 <바리공주> 교육 방안  
-7차, 2009개정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중심으로-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현

# 인 준 서

김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 국 문 초 록 >

### 서사무가 <바리공주> 교육 방안

-7차, 2009개정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중심으로 무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진오기굿과 <바리공주>와의 관련성 및 연극적 요소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수행 평가 방안을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방안을 언급하기 전에 무가의 특성, <바리공주> 무가 채록 현황, 지역별 <바리공주>의 서사단락을 확인하여 <바리공주> 교수·학습 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

다음으로는 7차, 2007개정, 2009개정 국어 교과서 및 문학 교과서에서 무가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및 문학 교과서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1편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무가 작품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선택 과목 ‘문학’에서 <바리공주> 4편과 <제석본풀이> 1편을 수록해 놓았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및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바리공주>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중심 작품으로 수록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보충학습이나 생활 국어에서 활동으로 일부분 수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바리공주>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중심 작품으로 수록 된 것이 아니라 활동다지기 형태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문학’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바리공주>가 4편과 <세경본풀이>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무가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무가 교육의 모습을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교수·학습 방안으로는 먼저 서사무가<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관계 및 진오기굿에 나타난 연극적 요소를 확인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서사무가<바리공주>의 이론 및 내용을 토대로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마련하고 평가 방법으로는 대본 만들기와 목소리만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여 수행 평가를 고안하였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범위와 방법	10
II. 서사무가<바리공주>의 각편 소개 및 이해	15
1. 무가의 특성 및 종류	15
2. <바리공주> 무가 채록 현황	17
3. 지역별 <바리공주>의 서사단락	20
III. 국어과 교육과정 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26
1.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27
1)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 체계	27
2)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30
2. 2009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49
1)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 체계	49
2)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53
IV. 서사무가 <바리공주> 교수·학습 방안	67
1. 진오기굿과 연극적 요소	67
2. <바리공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69
1) 1차시 교수·학습-이론적 접근	69
2) 2차시 교수·학습-내용적 접근	75
3) 수행 평가의 방법	79
3. <바리공주>를 활용한 수행 평가 실례	85
1) 대본 만들기	85
2) 목소리로 연극하기	95
3) 평가	96
V. 결론	99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목적

한국 구비문학은 크게 설화, 민요, 무가, 가면극(탈춤), 판소리 등이 있다. 이 중 무가는 무속의식에서 무당이 굿을 하며 부르는 주술적인 기능을 가진 노래이다. 무가 속에는 신의 행적을 기술한 것도 있고, 신과 인간의 대화도 있으며, 신을 찬양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비는 말도 들어 있다. 이런 점에서 무가를 문예학 장르별로 나누면 서정무가, 교술무가, 서사무가, 희곡무가로 분류된다.<sup>1)</sup> 이 중 특히 서사무가는 무당들이 굿을 할 때 현장에서 구송되는 굿노래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조상들의 사유체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 전통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무가는 ‘본풀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의 내력을 이야기 한다는 측면에서 무속신화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서사물이기 때문에 구비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다. <바리공주>는 서사무가의 측면에서 연구되기도 하고 무속신화의 측면에서 연구되기도 한다. 서사무가는 굿을 진행할 때 무당이 부르는 굿노래(사설, 문서)인 까닭에 현장성이 더 강하고, 무속신화는 채록된 사설내용을 중심으로 문학적 측면의 시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서사무가는 인간의 출현과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신들의 좌정, 인간세계의 이야기, 인간 사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서사무가는 신의 내력을 인간에게 전달하여서 무속 경전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굿판에 참가한 청중들을 강렬하게 굿판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행적에 따라 웃고 우는 가운데 청중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sup> 이처럼 굿은 청중들, 즉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서민층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과 저승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굿판은 지금까지도 무당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향유되었는가만 따져 보아도 굿 또한 무가 교육의 범위 안

1) 조동일(1994), 『한국문학강의』, 길벗, p.77.

2) 홍태한(2002),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P.8.

에서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무가 교육을 하려면 앞서 바리공주가 어떻게 신으로 좌정되었는가를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오구풀이 즉, 바리공주가 불려지는 ‘오구굿’에 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오구굿은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사령(死靈)제이다. 오구굿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실제 사용의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중부지역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오구굿이 사령제 그 자체를 칭하며, 호남지역에서는 사령제 절차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호남의 오구굿은 씻김굿이라고 불리는 큰 굿의 한 절차이지만, 다른 지방의 오구굿은 씻김굿에 해당하는 큰 굿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영남지역에서는 오구굿이 큰 굿의 이름이면서 굿거리 명칭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어 구분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오구굿의 쓰임이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sup> 오구굿은 경기도와 황해도에서는 진오기굿, 평안도에서는 수왕굿 혹은 다리굿, 함경도에서는 망목굿, 경상도에서는 오구굿 혹은 밤을 새우며 한다고 해서 밤저굿, 전라도에서는 씻김굿, 제주도에서는 시왕맞이굿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한 교수·학습 및 수행 평가의 체재로써 2009개정 교육과정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하)에 수록된 <바리공주> 서울 배경재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제한하여 ‘진오기굿’을 기본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진오기굿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망자천도굿으로 서울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 굿이다. 이 진오기굿의 굿거리는 <주당물림-부정청배-가망청배-불사-산-조상-대안주-성주-창부-뜯대왕-사재삼성-말미-도령돌기-상식-베가르기-뒤틀영실-뒤틀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노래하는 뜯대왕에서 사재삼성까지 망자가 저승 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나면 저승으로 떠나는 이를 인도하는 신격인 바리공주의 일대기가 구

3) 홍태한, 이경엽 공저(2001),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3』, 민속원, p.9.

4) 서연호(1997), 『한국 전승연희의 현장연구』, 집문당, p.264.

술되는 말미가 구송되고 이것이 끝난 뒤 무당이 바리공주가 되어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거리인 도령을 돈다. 극락으로 인도하는 도령문이 세워지고 무당은 바리공주의 화려한 옷을 입고 굿상을 끼고 춤을 춘다. 이어서 베가르기, 뒷영실, 뒷전을 끝으로 진오기굿이 끝이 난다.

이러한 굿의 과정을 알아야 <바리공주>가 우리 조상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우리 문학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무가 교육에서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역경을 극복한 한 여성의 일대기 혹은 효나 도덕성 등 타성적인 주제로 교훈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승되어온 과정을 ‘장르는 서사무가’, ‘무당에 의해 굿으로 불리는 노래’ 정도로 짧게 소개하거나 무시한 채 <바리공주>의 내용만을 학습하는 식의 무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가 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옛 이야기를 읽고 그 주제만을 기억하는 정도의 교육에 그치고 말 것이다. 최첨단 기술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학습자들은 더 이상 교과서 안에서 의존하지 않는다. 교수방법 역시 교과서를 떠나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더욱 더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승세계와 신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자극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무가 교육을 단순히 내용과 교훈적 측면의 전달이 아닌 굿과 함께 전승되어 온 과정을 접목시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작품의 가치를 한 차원 더 승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가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수업시간에 핵심점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과 함께 무속적 측면에서 현장성이 강한 진오기굿의 <바리공주>에 엮보이는 연극적 요소를 찾아 실제 수업에서 수행 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서사무가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며, 본 연구가 우리의 전통문화 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무

가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무가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의 중, 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1편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무가 작품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선택 과목 ‘문학’에서 <바리공주> 4편과 <제석본풀이> 1편을 수록해 놓았다. 7차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문학’이 총 18종임을 감안할 때, 무가 교육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및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바리공주>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중심 작품으로 수록 된 것이 아니라 주로 보충학습이나 생활 국어에서 활동으로 일부분 수록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바리공주>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본문의 중심 작품으로 수록 된 것이 아니라 활동다지기 형태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고2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문학’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바리공주>가 3편<sup>5)</sup>과 <세경본풀이>1편이 수록되어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문학’이 총 14종으로 그 이전의 18종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무가 교육의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안 되는 작품이기는 하지만 <바리공주>,<세경본풀이>,<제석본풀이>가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한해서는 무가 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에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봤을 때, 주로 <바리공주>를 채택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우선 장르를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비문학의 한 갈

---

5) 총 4편이 수록되어 있으나, 미래엔(문학(상))에 수록된 작품은 <바리공주>작품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바리공주 이름을 짧게 소개하고 있어 작품을 학습한다고 볼 수 없어 총 3편이라고 볼 수 있다.

래로써 무가로 볼 수 있지만 신들의 내력을 풀이한다는 점에서는 신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바리공주>는 전승지역인 각편에 따라서 무가명도 다르고 줄거리 및 등장인물의 명칭도 다르다. 7차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문학’의 예를 들자면 디딤돌 문학(하)에서는 <바리공주>로 무가명을 적어 놓았으나, 블랙박스 문학(상)에서는 <바리데기>로 무가명을 적어 놓았으며 경북지역에서 전승되어 채록된 무가임을 밝히고 있다.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여 수업하는 현 교육체제의 학습자는 교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바리공주>의 무가명에서부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바리공주>의 무가명이 전승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과서의 제재만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재의 활용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우선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과서의 활동 영역이 보다 다양화되고 창의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내용 확인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리공주>를 생각해보면 이미 <바리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동화, 연극, 판소리, 게임 등 <바리공주>를 제재로 활용하는 콘텐츠를 감안하면 학습자들은 이미 한 번 이상은 <바리공주> 텍스트를 직, 간접적으로 접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텍스트 안의 내용만을 점검하는 형식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무가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바리공주> 제재를 활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는 형식의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는 활동을 개발한다면 내용뿐만 아니라 흥미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무가 교육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서사무가의 본질적 측면 및 장르적 특성을 학습 현장에서 정확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무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리공주>와의 관련성이 깊은 진오기굿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수행 평가 방안을 다양하게 고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무가 교육의 필요성과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기존의 무가 교육과는 다른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먼저 서사무가<바리공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접목시킨 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인 학자에 의해 채록된 이후 바리공주가 본격적으로 채록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특히 『황천무가연구』라는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서를 간행하면서 바리공주를 채록한 김태곤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이 책이 간행됨으로써 비로소 무가에 대한 연구서적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무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김태곤<sup>7)</sup>은 자신이 직접 찍은 굿의 사진을 수록하고 황천무가를 오구굿系, 解冤굿系, 조상굿系로 나누어 다루고 황천무가에 담긴 관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중 <바리공주>는 바리공주 채록본인 <바리데기(오구물림)>, <바리데기>, <七公主(오기풀이)>, <바리공주>를 실어 놓았다.

서대석<sup>8)</sup>은 <바리공주>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가장 유명한 유형이며, 각 지역별로 비교적 많은 채록이 이루어졌고 가장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37년부터 1960년까지 채록된 10편의 각편을 무가명, 조사자, 전승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기록해놓고 각 지역별 각편을

6) 홍태한, 김진영(1997), 『바리공주 전집1』, 민속원, p.11.

7) 김태곤(1966),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8) 서대석(1980), “바리공주 연구”,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p.p.199~218.

비교·정리해놓았다. 정리한 내용에서 나타난 <바리공주> 각편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남에서 북까지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태한<sup>9)</sup>은 <바리공주>에 대한 각편을 정리하고, 형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여 각 무가권별로 사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또한 망자천도굿이라는 특성에서 주로 오구굿과 연관을 지어 <바리공주>가 어떻게 구송되고 있는가와 그 의미까지 살펴보았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부분이기에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바리공주>의 서사적 구조 및 죽음과의 관련을 확인하고 문학적 수용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현선<sup>10)</sup>은 <바리공주>의 여성 주인공을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곳과의 상관성을 밝히며 <바리공주>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토대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각국의 자료들을 비교했다. 대표적으로 <버들도령>, <니산샤만신가>, <이자나기사이론>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실제 관찰할 곳의 자료를 수록하여 소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김영민<sup>11)</sup>은 <바리공주>에 나타난 영육관을 살펴보고 저승관을 서울·경기 지역, 전라도·남해안 지역, 경상도·동해안 지역,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바리공주>의 버림 받은 후 고난을 극복하고 부모를 살려낸다는 구조를 만조족의 <니산 샤먼의 이야기>와 비교하여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바리공주>에 나타난 영육관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가 영혼보다는 육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의 조상들은 이승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오래살기를 바랐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경숙<sup>12)</sup>은 <바리공주>를 통해서 선조들의 죽음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9) 홍태한(1998),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0) 김현선(2004), 「특집 : 세계의 여신신화 ;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종교와 문화, Vol.10, p.p.21~88.

11) 김영민(2002),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Vol.7, p.p.15~32.

12) 한경숙(1996), 「바리공주 무가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죽음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바리공주 무가의 수집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바리공주>와 진오기긋의 연 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통해 선조들은 영혼보다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 각했고, 저승보다 이승을 더 중시하였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서사무가<바리공주>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한국인 의 죽음인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바리공주>를 살펴본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바리공주>를 교육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김소영<sup>13)</sup>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무가인 <바 리공주>와 <제석본풀이>에서 보여지는 한국인의 행복관의 양상과 성격을 규 명하고자 했다.

이선근<sup>14)</sup>은 저승인식을 고찰하고 이러한 저승인식이 서사무가에 어떤 형태 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덧붙여 이를 통해서 교육적 가치를 찾고 자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무속신앙, 굿과 무가에 대 한 생각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무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유권<sup>15)</sup>은 서사무가<바리공주>을 문학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교육적인 가치를 고찰했다. 무가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교재 수록 현황 및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바리공주>의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이수빈<sup>16)</sup>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바리공주>와 <당금애기>를 중심으로 서사무가의 문학과 교육적인 효용성 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18종 문학교과서의 바리공주 수록 현황이 교 학사(구), 디딤돌, 블랙박스로 표기되어 있는데 미래엔(대한) 문학 교과서(하) 의 5단원에도 <바리데기>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정정해야 할 것으로

---

13) 김소영(2003), 「<바리공주>무가와 <제석본풀이>무가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관 연구」, 한양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이선근(2000), 「서사무가에 나타난 저승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5) 최유권(2002), 「서사무가<바리공주> 연구-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16) 이수빈(2006), 「무가 교육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바리공주>와 <당금애기>를 중심으로-」, 아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인다.

안수연<sup>17)</sup>은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바리데기의 모습에 주목하고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를 중심으로 교육적인 의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바리공주>의 장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서사무가’ 혹은 ‘무조신화’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우리 무속에서 전해오는 바리공주 이야기’로, 교사용지도서에는 ‘우리나라 무속 이야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했으며, 설화 교육의 의의와 서사무가 교육의 의의를 둘 다 언급하고 있어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한계점이 보인다.

송은희<sup>18)</sup>는 중·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여성 영웅신화를 교육할 때 여성 영웅신화만의 특징에 주목하여 ‘반응 중심의 여성 영웅신화 토의 학습’을 적용하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텍스트 자체를 중시해 그 안에서 유일한 의미를 찾는 것을 지향하는 신비평적인 관점에 반해 독자 반응을 이끌어내는 문학 교육적 적용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 중 <바리공주>를 설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바리공주>를 넓게 본다면 설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면 갈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를 살펴본 선행 연구 중에서는 수록되어 있음에도 고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가 교육의 측면에서 <바리공주>를 바라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현황을 점검하여 기존의 연구를 바로잡고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활용한 올바른 무가 교육의

17) 안수연(2008), 「<바리데기>에 나타난 여성상의 분석과 교육적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송은희(2009), 「여성 영웅신화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바리공주>, <세경본풀이>, <도량선비와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범위는 7차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및 문학 교과서 18종, 2007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23종의 국어 및 생활 국어 교과서, 중학교 2학년의 15종 국어 및 생활 국어 교과서, 중학교 3학년 12종 국어 및 생활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16종 국어 교과서,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에 해당하는 14종<sup>19)</sup> 문학 교과서이다.

위의 7차 교과서에 수록된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7차 중·고등학교 교과서 무가 작품 수록 현황

교육과정	학교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및 소단원
7차	중학교	국어	2-2	국정	2.이야기의 구조 보충.심화2)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
	고등학교	문학	(하)	디딤돌	3.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1) 한국 문학의 성격과 특징 (1) 바리공주
		문학	(상)	교학사(구)	1.문학의 본질 3) 문학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단원의 마무리) 보충학습-동해안무가 일부-
		문학	(상)	블랙박스	1. 문학의 특성 2) 문학과 언어 작품읽기1. (2) 바리데기 -경복무가-
		문학	(하)	미래엔(대한)	5.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1) 한국 문학의 특징 (3) 바리데기

19) 문학 I 와 문학 II 를 함께 선택해야만 하는 학교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13종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확인하는 것임으로 14종으로 적는다.

7차 고등학교 <제석본풀이>	문학	(상)	금성	4.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1) 소설의 특성과 갈래 (1) 제석본풀이
--------------------	----	-----	----	--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에는 무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2단원에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가 수록되어 있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무가 교육 차원에서 수록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각색하여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는 목표로 읽기교육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장르의 구분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무속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무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18종 문학 교과서에는 디딤돌 문학 교과서(하), 교학사(구) 문학 교과서 (상), 블랙박스 문학 교과서 (상), 미래엔 문학 교과서 (하)에 <바리공주> 작품이 <바리공주>, <바리데기>의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07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무가 작품 현황

교육과정	학교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및 소단원
2007 개정	중학교	국어	3-2	교학사(남)	1. 고전 문학의 향기 2) 춘향전 스스로 학습) 바리공주
		생활 국어	3-2	미래엔(이)	6. 삶과 해학 1) 고전에서 배우는 삶과 가치 활동3) 바리데기 중 일부
	고등학교	국어	(하)	신사고(민)	2.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좌표 2) 이야기의 전통 (2)유충렬전-활동다지기2-(3)바리데기 요약

2007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1,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무가 작품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중 교학사(남)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와 미래엔의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바리공주>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서는 신사고의 국어 교과서 1종에서만 <바리공주>작품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무가 작품이 수록된 모습을 보면 작품 전체를 제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활동 학습에 수록해 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서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서의 무가 작품 수록 현황

교육과정	학교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및 소단원
2009 개정	고등학교	문학	(하)	해냄에듀	2. 한국 문학의 이해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바리데기-경기 배경재 구연본
		문학	(상)	미래엔(대한)	1. 문학의 개념과 역할 대단원 마무리하기-문학 작품 속 “이름” 바리데기 일부
		문학	(하)	지학사(권)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1) 한국 문학의 개념 (3) 바리공주-평택 노재웅 구술본
		문학	(하)	창비	1. 한국 문학의 위상 1) 한국 문학의 범위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01-바리데기-김복순 구술-동해안무가-
2009개정 고등학교 <세경본풀이>		문학	(하)	천재(김)	1. 한국 문학의 이해 1) 한국 문학 이해의 시각 (2)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01-세경본풀이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하), 미래엔 문학 교과서(상), 지학사(권) 문학 교과서(하), 창비 문학 교과

서(하)에 <바리공주>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천재(김) 문학 교과서(하)에는 세경본풀이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리공주>의 경우 <바리데기>의 무가명으로 소개된 것이 많았으며 미래엔 문학 교과서의 경우에는 <바리공주> 작품을 개관하는 것이 아닌 바리공주 이름에 대한 소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완전히 학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고 <바리공주>를 수록하고 있는 나머지 3종의 문학 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위와 같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7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와 2007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작품은 활동 학습에서 다루고 있어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2007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1종이 <바리공주>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본문에 수록하여 작품 전체를 개관하는 형태가 아닌 활동다지기 형태로 요약본으로 소개되고 있어 연구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무가 교육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만큼 교과서에 수록된 <제석본풀이>와 <세경본풀이> 역시도 연구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따라서 최종적인 연구범위는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18종 중 4종과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14종 중 3종이 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II장에서는 무가의 특성, <바리공주> 무가 채록 현황, 지역별 <바리공주>의 서사단락을 확인하여 <바리공주>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이 실현된 교과서에서 <바리공주>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관계 및 진오기굿에 나타난 연극적 요소를 확인하고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무가 교육의 올바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수행 평가 방법을 고안해본다.

## II. 서사무가<바리공주>의 각편 소개 및 이해

### 1. 무가의 특성 및 종류

<바리공주>는 우리나라 광포무가로 전국적 분포도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당금애기와 함께 서사무가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학들이 무가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강등학 외<sup>20)</sup>에서는 무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가는 주술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에게 제화초복을 기원하여 그것을 이루려는 무속의례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주술성을 바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무가가 가지는 또다른 특징으로는 신성성을 들 수 있는데, 무속신의 주술적 능력을 믿어야만 신성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가가 가지는 또다른 특성은 전승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가는 주술성과 신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무가를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무가는 율문 전승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 점은 민요나 판소리와 같다. 끝으로 무가가 가지는 특성으로 포용성을 들 수 있다. 무가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그 사상적 바탕을 하는데, 한국의 무속신앙은 외래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외래종교가 유입되면 한국 무속신앙은 정면대응하여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선다.

장덕순 외<sup>21)</sup>에서는 무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가에는 여타 구비문학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술성(呪術性)이다. 구비문학에서 주술성이 있는 문학은 무가뿐이다. 둘째, 신성성(神聖性)이다. 무가는 그 청자가 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전승이 제한되어 있다. 무가는 무속인이라는 특정 부류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으며, 무속인의 사제관계를 통해서나 무의를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오락성(娛樂性)이다. 무의 자체가 민중의 큰 구경거리 구실을 해 왔으며 무의가 흥미롭다는 사실은 무가가 문학적으로 흥미롭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

20) 강등학 외 (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P.P.323~328.

21) 장덕순 외 (2006),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p.p.163~165.

문에 문가가 문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다섯째, 율문(律文)의 전승이다. 무가의 악곡은 대개 그 지방의 민요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서사무가와 같은 장편무가는 4음보격으로 듣기 좋게 구송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학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무가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무가의 신성성이다. 그 외에도 무가의 주술성, 전승제한, 오락성, 율문의 전승, 포용성을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서사무가를 전승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전국 전승유형: <제석본풀이><바리공주><칠성풀이>

관북지방: <창세가><오기풀이><생긋><안택긋><혼쉬긋><돈전풀이><도량선배청정각시의 노래><짐가제긋><숙연랑 앵연랑신가>

관서지방: <삼태자풀이><신선세턴님청배><원구님청배><성신긋>

경기지역: <성주본가><바리공주><제석본풀이><시루말>

동해안지역: <시군긋><성주풀이><바리공주><심청><계면긋><손님긋>

영남지방: <시군긋><성주풀이><바리공주><심청><손님긋><계면긋>

호남지역: <제석본풀이><바리데기><칠성풀이><장자풀이>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원천강본풀이><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신중도풀이><차사본풀이><칠성본풀이><군웅본풀이><문전본풀이><영감본풀이><서귀포본향당본풀이><토산당본풀이>

이렇듯 다양하게 전승되는 서사무가는 완전한 설화의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되어 있는 무가를 말한다. 따라서 서사무가는 ①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있을 것, ② 그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서술일 것 등의 요

22) 조동일 외 6인(1994), 『한국문학강의』, 길벗, p.83.

건이 필요하리라 본다.<sup>23)</sup>

위에서 소개한 바대로 서사무가가 가장 많이 전승되는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섬이라는 폐쇄적 공간과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서사무가를 풍부하게 하는 터전이 된 것이다.

## 2. <바리공주> 채록 현황

<바리공주>가 최초로 採錄 보고된 것은 赤松智城·秋葉隆의 『朝鮮巫俗의 研究』이다. 서울 지역 강신무 배경재를 대상으로 12거리를 모두 조사한 이 자료는 최초의 무가를 채록했다는 의의가 있다. 1937년도에 발간된 『조선 무속의 연구』에 日人 학자 아키마스지쵸(赤松智城)에 의해 채록된 이후 <바리공주>가 본격적으로 채록되기 시작한 것을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특히 『黃泉巫歌研究』라는 <바리공주>에 대한 연구서를 간행하면서 <바리공주>를 채록한 金泰坤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이 책이 간행됨으로써 비로소 무가가 본격적인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인정되어 많은 학자들이 무속과 무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채록되던 <바리공주>가 본격적으로 채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韓國精神文化研究院<sup>24)</sup>에서 『韓國口碑文學大系』 간행 사업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구비문학 조사 사업을 하면서부터이다. 전국 5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화, 민요와 함께 370여편의 무가가 채록되어 무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당량의 <바리공주>가 채록되어 <바리공주>의 전국적인 분포와 전승향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25)</sup>

현재까지 채록된 <바리공주>의 채록상황은 다음과 같다.<sup>26)</sup>

23) 장덕순 외(2006),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p.p.181~182.

24) 2005년 1월 27일 육성법 개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5) 홍태한(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0~11.

26) 홍태한(2002), 『한국 서사무가연구』, 민속원 p.p.257~259.

<표-4> <바리공주> 채록 현황

번호	각편명	구송자	전송지역	조사자	발표지	간행처	발표 년도
1	바리공주	배경재	서 울	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37
2	바리공주	필사본	미 상	김동옥	황희돈회갑기념집 (김동옥소장)	간행위원회	1960
3	오기풀이	지금철	함북홍원	임석재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4	말미	문덕순	서 울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5	비리데기	송희식	경북안동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6	칠공주	이교분	함북함흥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7	오구물림	김 주	광 주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8	바리공주	조영자	경기양주	장주근	경기지역무속	문화재관리국	1970
9	오구풀이	박소녀	전북부안	임석재	줄포무악	문화재관리국	1970
10	바리데기	김복순	경북영덕 27)	최정여	동해안무가	형설출판사	1974
11	버리데기굿	주평단	전남해남	김태곤	한국무가집2	집문당	1976
12	오구	오복례	전남고흥	김태곤	한국무가집2	집문당	1976
13	오구	이애순	전남광양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4	오구물림	배성녀	전북고창	김태곤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15	바리덕이	김영숙	강원명주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1	정신문화연구원	1979
16	베리데기	김석출	경북영일	김태곤	한국무가집4	집문당	1980
17	바리공주	송분임	경기강화	조동일	한국구비문학대계1-7	정신문화연구원	1982
18	바리떼기	신석남	강원속초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4	정신문화연구원	1983
19	바리떼기	지경숙	강원양양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4	정신문화연구원	1983
20	칠공주풀이	박복개	경남통영	정병호	민속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3
21	오구풀이	박소녀	전북부안	정병호	민속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3
22	오구풀이	박순자	전남고흥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6-3	정신문화연구원	1984
23	오구머리	김안순	전남신안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7	정신문화연구원	1985
24	오구굿	공영심	전남신안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7	정신문화연구원	1985
25	오구굿	김한심	전남고흥	임성래	남도문화연구2	순천대학교	1986
26	오구굿	오일남	전남고흥	임성래	남도문화연구2	순천대학교	1986
27	오구굿	김막례	전남보성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12	정신문화연구원	1988
28	오구굿	김교분	전남보성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12	정신문화연구원	1988
29	오구풀이	김행연	전남보성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6-12	정신문화연구원	1988
30	버리덕이	최명덕	서 울	임석재	한국구전설화5	평민사	1988
31	바리공주	정영숙	인 천	이선주	인천지역무속3	미문출판사	1989
32	바리공주	도정희	인 천	이선주	인천지역무속3	미문출판사	1989
33	베리데기	유일순	경북울주	장정룡	김상선교수회갑논총	간행위원회	1990
34	오구물림	한이엽	전남고흥	최길성	한국무속지1	아세아문화사	1992
35	방심굿	김석출	부 산	최길성	한국무속지1	아세아문화사	1992
36	부 리들이	필사본	미 상	최길성	한국무속지2 (이저순소장)	아세아문화사	1992
37	말미	최명덕	서 울	최길성	한국무속지2	아세아문화사	1992
38	바리데기	송명희	강원강릉	장정룡	강원민속학9	강원민속학회	1992
39	베기데기	탁순동	강원속초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40	오구굿	임장엽	전남화순	강동원	화순무가사설집	도서출판 민	1992
41	오구푸리라	필사본	전남순천	이경엽	순천시의 문화유적 (박경자소장)	순천시청	1992
42	발이공주	필사본	미 상	김헌선	일반무가(정문연소장)	고려대학교	1995
43	발이공주	필사본	미 상	김헌선	일반무가(조동일소장)	고려대학교	1995
44	바리데기	김대길	서 울	정병호	중앙민속학7	중앙대학교	1995

45	바리공주	장성만	경기성남	조희용	이야기문학모꼬지	박이정	1995
46	오구굿	진금순	전남신안	이경엽	남도민속연구2	남도민속학회	1995
47	베리데기	정화점	전남영암	이두현	한국무속과 연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8	밭이공주	필사본	경기성남	장장식	한국민속학보7 (주옥선소장)	한국민속학회	1996
49	말미	반승업	서울	김유감	서울새남굿신가집	문덕사	1996
50	바리공주	최종용	서울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1	바리공주	노재용	경기평택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2	바리공주	노재용	충남공주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3	밭이공주	배명부	충남천안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4	바리공주	김종덕	서울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5	바리공주	장성만	경기성남	홍태한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56	칠공주풀이	필사본	경남통영	김선평	남해안별신굿 (정영만소장)	박이정	1997
57	칠공주말미	박종복	서울	김헌선	한국화랭이무속의 역사와 원리	지식산업사	1997
58	오구굿	황옥진	전남화순	이경엽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남도민속학회	1998
59	오구풀이	양희님	전남화순	이경엽	화순군의 민속과 축제	남도민속학회	1998
60	말리거리	김경주	서울	홍태한	구비문학연구7	한국구비문학회	1998
61	시왕풀이	무영씨	전북부안	박현국	비교민속학15	비교민속학회	1998
62	밭이공주	필사본	서울	장장식	한국무속학보1 (주광석소장)	한국무속학회	1999
63	버리데기	빈순애	강원속초	장정룡	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	월인	1999
64	말미	조순웅	경기화성	하주성	화성의열4	화성문화원	1999
65	바리공주	김봉순	경기연천	양종승	연천군지	연천군	2000
66	오구굿	김수정	전남순천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67	오구굿	박경자	전남순천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68	오구굿	이임순	전남순천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69	오구굿	한생심	전남여수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70	오구굿	필사본	전남순천	이경엽	씻김굿 무가(박영순소장)	박이정	2000
71	바리데기	김봉순	전북군산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72	오구물림	신귀녀	전북정읍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73	오구세왕풀이	전금순	전북정읍	김성식	전북의 무가	전라북도립국악원	2000
74	말미거리	정응구	서울	홍태한	바리공주전집3	민속원	2001
75	오구굿	이장단	광주	이경엽	바리공주전집3	민속원	2001

홍태한의 1997년에 발표된 박사논문에서는 <바리공주>가 모두 51편이 발표되었으며 동일한 자료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 7편, 경기도 7편, 충청도 2편, 강원도 5편, 전라도 14편, 경상도 7편, 북한지역 2편, 필사본 5편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총 49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27) 홍태한은 채록 현황에 '경북 영덕'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그의 저서 <바리공주 전집>의 김복순 편을 보면 '영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할 때는 '영일'로 표기하겠다.

러나 2002년에 발표된 그의 저서 『한국 서사무가 연구』의 자료에는 기존의 논문 자료에서 1983년 김해에서 강분이가 구송한 것을 조사자 김승찬이 구비문학대계8-9에 수록한 내용과 1992년 강릉에서 송명희가 구송한 것을 조사자 장정룡이 속초의 향토민속에 수록한 내용을 삭제하고, 26편을 추가로 수록하여 2002년까지 총 75편의 <바리공주>가 채록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3.지역별 <바리공주>의 서사단락

각편 <바리공주>는 무당에 의해 구송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무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다른 서사구조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무가권에 따라서 나누면 북한지역과 서울·경기·인천·충청도 지역은 강신무 영역에 속하며, 동해안·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은 세습무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이처럼 지역에 따라 굿의 성격과 무당의 기능이 다른 만큼 <바리공주> 서사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북한지역 및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 <바리공주> 서사단락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5> 북한지역 및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 <바리공주> 서사단락<sup>29)</sup>

단락	북한지역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
1	바리공주의 부모가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을 온다	
2	혼인 후에 자식을 얻기 위해 문복을 한다.(2b)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하기 위해 문복하나 결과를 무시한다.(2a)
3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4	바리공주 부모가 자식을 부러워 한다.	
5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6	아들을 낳기 위해 공을 드린다.	

28) 홍태한(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9.

7		
8	일곱 번째도 딸을 낳는다.	일곱 번째도 딸을 낳는다.
9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10		
11	바리공주를 수궁용왕 큰덕이 나타나 구해준다.(11b)	석가여래가 함에서 바리공주를 구원해낸다.(11a)
12	바리공주를 수궁용왕 큰덕이나 부인이 양육한다.(12c)	바리공덕 할아비·할미가 바리공주를 키워준다.(12a)
13	바리공주 양육자가 공주를 해산했다며 키우다가 거짓이 밝혀진다. (13a)	바리공주가 성장하여 부모를 찾자 겨우 둘러댄다.(13b)
14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15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16		정을 쳐 바리공주를 찾아야 함을 알게 된다.(16a)
17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8		
19		바리공주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부모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다.
20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여섯 딸에게 구약을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21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22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유용한 물건을 받는다.(22a)
23	바리공주는 도중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죄상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는다.(23a)	
24		
25		바리공주는 도중에 지옥에서 죄인들을 구제한다.
26		바리공주는 약수를 지키는 이를 만난다.
27		
28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29		바리공주는 꿈을 꾸어 부모의 위독함을 알게 된다.(29a)
30		
31		
32		
33		바리공주가 돌아오는 도중에 저승 가는 배들의 행렬을 구경한다.
34	바리공주는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바리공주가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목동아이에게서 듣는다.(34a)
35		
36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37		바리공주의 남편이 대궐을 훔고 입실한다.
38		키를 재어보고 바리공주와 남편이 천생 연분임을 안다.

39	바리공주가 죽는다.(39a)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
40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남편, 자식, 양육자)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북한지역은 모두 40개의 단락 중에서 21개의 단락이 나타나며,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에서는 모두 27개의 단락이 나타난다.

북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바리공주의 부모가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을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강신무 영역에 속하는 북한지역과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에서는 세습무 영역에 속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하는 <단락3> 이전에 자식을 얻기 위해 문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단락16>은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에만 유일하게 점을 쳐서 바리공주를 찾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찾은 바리공주는 부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결말부분은 북한 지역만 유일하게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 후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이색적이다.

다음으로는 세습무 영역에 속하는 동해안·경상도 지역 및 전라도 지역의 <바리공주>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

<표-6> 동해안·경상도 지역 및 전라도 지역 <바리공주> 서사단락30)

단락	동해안·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1		
2		
3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4		
5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6	아들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인다.	아들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인다.

29) 홍태한, 앞의 논문, p.p.68~73.(홍태한은 지역별로 공통성이 강한 단락을 중심으로 나누고 단락10-바리공주 부모가 버린 자식을 다시 데려 온다, 단락 18-바리공주가 처음에는 약수물을 가지러 가기를 거절한다. 단락 24-바리공주 도중에 지옥에 갇힌다. 단락 32-바리공주가 꽃 구경을 하다가 사람 살리는 꽃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단락은 몇몇의 작품에 등장하는 것으로 지역별 서사단락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홍태한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서사단락을 표로 구성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놓았으며, 지역별로 모두 공통된 서사단락은 짙은 색으로 표시한다.)

7	바리공주를 낳기 전 태몽을 얻는다.	바리공주를 낳기 전 태몽을 얻는다.
8	일곱 번째도 딸을 낳는다.	일곱 번째도 딸을 낳는다.
9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바리공주가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는다.
10		
11	구출자가 바리공주를 구해낸다.	
12	양육자가 바리공주를 기른다.	
13	바리공주가 주위의 도움으로 글공부를 하며 성장한다.	
14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15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16		
17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18		
19		
20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여섯 딸에게 구약을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21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바리공주가 여장을 한 채 약수물을 구하러 떠난다.(21b)
22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강을 건너거나 길 안내를 받는다.(22b)	
23	바리공주는 도중에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해결한다.	
24		
25		
26	바리공주는 약수를 지키는 이를 만난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지키는 자를 만난다.
27	바리공주는 여자임을 감추려 하나 결국 여자임이 탄로 난다.	
28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29		
30	바리공주가 약수탕을 다녀온다.	
31	바리공주는 약수탕을 다녀오는 도중에 도움을 받는다.	
32		
33		
34		바리공주가 시간이 늦어서 벌써 상여가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
35	바리공주는 언니들의 방해를 물리친다.	
36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린다.
37		
38		
39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
40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 받는다.	바리공주 외 다른 사람들도 공덕을 인정받는다.

30) 홍태한, 앞의 논문, p.p.68~73(홍태한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서사단락을 표로 구성하였다. 지역별로 공통된 서사단락은 짙은 색으로 표시한다.)

동해안·경상도 지역은 40개의 단락 중 25개의 단락이 나타나며, 전라도 지역은 모두 1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습무 영역에 속하는 동해안·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바리공주>서사단락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강습무 영역에 속하는 지역과는 달리 <단락7>에서 바리공주를 낳기 전에 태몽을 얻는 부분이 등장한다. 동해안·경상도 지역에서는 바리공주가 남장을 하고 약수물을 구하러 갔다가 <단락27>에서 여자임이 들통이 나는가 하면 <단락35>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던 언니들의 방해가 있고 이를 물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살펴본 지역별 서사구조를 토대로 모든 이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본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단락3)
- 2)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단락5)
- 3) 일곱 번째도 공주를 낳는다.(단락8)
- 4)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단락9)
- 5)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단락14)
- 6)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단락15)
- 7)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단락17)
- 8)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단락20)
- 9)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단락21)
- 10)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단락26)
- 11)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단락28)
- 12)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단락36)
- 13)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인정받는다.(단락39)<sup>31)</sup>

---

31) 홍태한, 앞의 논문, p.59.

지역에 따라 서사구조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주인공 및 부모의 신분과 배경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표-7> 각 지역 무가권별 주인공 및 부모의 신분 비교<sup>32)</sup>

지역본	부모의 이름(신분)	주인공의 이름 (신분)	배경
북한 지역본	덕주아·수차량(양반)	바리덕이(불명확)	양반집인 듯
중서부 지역본	업비대왕마마(왕)	바리공주 바리데기(공주)	궁궐임을 분명히 묘사
동해안·경상도 지역본	오귀대왕·길대부인(왕) 천별산대장군·검탈에병오 (뚜렷하지 않음)	벼리데기(공주) 비리데기(미상)	궁궐(분명한 묘사 없음)
전라도 지역본	오구대왕님·길대부인 (왕)-왕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버르덕이(공주)-공주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궁궐(분명한 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음)

표에서처럼 궁궐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곳은 중서부 지역본이다. 동해안·경상도 지역본과 전라도 지역본은 바리공주의 부모가 왕이며 주인공을 공주라고 호칭은 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북한 지역본은 대궐이 아닌 양반집에 양반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신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리공주>는 공통되는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공통되는 서사구조만을 활용하여 <바리공주>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전승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 홍태한, 앞의 논문, p.p.74~75.

### Ⅲ. 국어과 교육과정 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및 분석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무가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과정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해야 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문학 활동의 본체는 한국 문학에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게 되어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품 읽고 수용하기’, ‘한국 문학사 전개의 내면적 원리 이해하기’, ‘한국 문학의 지향점 이해하기’ 등으로 세부내용을 구성하고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다양성과 활동의 세밀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경험의 다양성이란 문학의 발생기부터 최근의 문학까지 전형적인 작품을 두루 읽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 이해’라는 점과 ‘문학의 발생기부터’라는 대목에서 무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가는 우리 민족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생각 즉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문학이다. 물론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의 발생기의 작품이라면 어느 것이든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무가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근거로 두어 무가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문학의 위상’에서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또한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을 이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학습할 때는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전통과 특질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생활 공동체로서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문학이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 문학은 각 지역에 그 바탕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므로 학습자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문학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는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작품’이

라는 점과 ‘생활 공동체로서 각 지역의 문학이 전개되었다’는 부분에서 무가 교육의 필요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무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전승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지역에 따라 무가의 무가명도 다르고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까지도 다르다. 전개에 있어서 결말이 다르게 이어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생활 공동체로서 각 지역의 문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가의 작품 중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작품들은 이미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아 그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작품들이기에 무가 교육에 소용되기에 손색이 없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가 구성된다. 이러한 교과서는 집필자의 권한에 의해 해당 교육과정과 맞는 작품을 선별하여 수록하게 된다. 여기에서 무가가 선택받지 못한다면 학습자가 무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적어진다. 무가는 우리 문학의 뿌리와 같다. 단지 굿과 무당과 같은 주술적 의식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무가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굿과 무당을 무가와 접목시켜 교육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갈래의 어떤 작품을 선택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부합하는 작품이라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 체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무가 교육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제 7차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 1)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 체계<sup>33)</sup>

문학 교육의 성격은 국어과 교육 일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학 교육도 단순히 작품만을 학습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고와 표현, 문화를 고려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7차 선택 교육과정 ‘문학’은 문학의 본질을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로 보았으며 학습자가 문학 현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문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문학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학’ 과목

33)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p.p.301~305.

의 위치를 국어과 전체의 체계와 관련하여 설계하였는데 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공통 기본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과 선택과목의 ‘문학’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문학’ 과목의 목적을 개인의 차원에서 문학 능력 신장, 공동체의 차원에서 문학 문화 발전으로 정의하고 그 하위 영역을 문학 능력 신장과 관련해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로 하위 영역을 설정하였고, 문학 문화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학과 문화’를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 과목의 지도에서는 바람직한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제 7차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과목의 목표는 개인의 문학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문학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항목은 문학에 관한 지식관련 목표인데 ‘문학’ 용어 안에 ‘문학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활동’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문학 이론이나 문학사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원리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나’ 항목은 문학의 수행 능력과 관련된 목표인데 문학이 단순히 고정된 작품이 아니라 학습자와 활동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학 교육의 핵심은 작품의 수용과 창작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과 관련되는 개인적인 측면을 다룬 ‘다’ 항목과 문화 발전과 관련되는 공동체의 측면을 다루는 ‘라’ 항목은 문학에 관한 태도에 관한 목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문학’ 과목의 목표는 국어과 전체 체계 내에서 공통 기본 ‘국어’ 과목의 목표와 선택과목인 ‘문학’이 유기적인 상관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국어’ 과목이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과 활동 원리, 태도를 목표로 제시한다면, 지식과 활동 원리, 태도 부분을 더욱 더 심화한 것이 ‘문학’ 과목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제 7차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1) 문학의 본질 영역은 문학 일반의 이론과 개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문학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문학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3) 문학과 문학 영역은 포괄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양상을 살피는데 초점을 두고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한 내면화를 강조한다.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영역은 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태도를 내면화 하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다.

2)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7차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내용체계를 토대로 <바리공주>가 각 문학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리공주>는 디딤돌, 교학사(구), 블랙박스, 미래엔(대한) 총 4개의 출판사에서 선택하여 교과서에 수록해놓았으며 각 출판사 별로 대단원과 소단원 구성, 학습목표를 살펴보고 선택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통 기본 ‘국어’의 ‘문학’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연계된 측면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디딤돌, <바리공주> 서울 지역 전승본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하	디딤돌	3.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1) 한국 문학의 성격과 특질 (1) 바리공주
			학습목표: 1.한국 문학의 연속성과 특질을 이해하고 창작에 고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세계 문학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한국 문학의 나아갈 길을 알아본다.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교류에 대해 이해한다.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3) 문학과 문학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①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로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디딤돌 문학 교과서 (하)에서는 3단원명을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으로 정하고 소단원으로 1. 한국 문학의 성격과 특질, 2. 세계 문학에 대한 시각, 3.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교섭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7차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영역별 내용을 반영한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학습목표 1번의 ‘한국 문학의 연속성과 특질을 이해하고 창작에 고려하는 태도를 기른다.’에서 교육과정의 (나)의 ①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학습목표 2번과 3번에서는 (다)의 ①, ②를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 기본 ‘국어’의 ‘문학’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10학년에서 ‘10-문-(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가 해당된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민족적 전통성, 즉 언어의 단일성, 문

학의 창조자와 수용자의 단일성,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동질성과 문학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성, 민족 문학을 한국 문학의 미래형으로 상정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전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선정한 항목<sup>34)</sup>임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이나 한국 문학을 학습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찾는 것이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3단원의 소단원1에 수록된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우선 바리공주의 제목 아래에 ‘죽은 사람의 혼령을 친도하는 곳에서 구연되는 무가’로 <바리공주>의 갈래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서사무가 혹은 무조 신화에 대한 언급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서울 지역 전승본>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앞에서 살펴본 채록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 서울 지역 전승본은 여러 편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전줄거리>

옛날 어느 왕국의 국왕이 즉위하여 결혼을 하려고 문복을 한다. 점쟁이는 금년에 결혼을 하면 공주만 일곱을 낳을 것이고, 내년엔 결혼을 하면 왕자 셋을 낳을 것이라고 한다. 왕은 점쟁이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해에 결혼을 했는데, 왕비는 계속해서 공주만 여섯을 낳는다. (...)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지시를 받은 비리공덕할아비와 비리공덕할미에게 구출되어 양육된다. 바리공주가 15세가 되었을 때 왕은 병이 들고, 꿈에 청의동자가 나타나 하늘이 내려 준 바리공주를 내다 버린 죄로 병이 들었으니, 병을 고치려면 바리공주를 찾아 신선 세계의 약수를 구해 먹어야 된다고 한다. 충성스런 신하가 고생 끝에 바리공주를 찾아오고, 여섯 언니가 모두 못 가겠다는 것을 바리공주 홀로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난다.

칠공주(第七公主) 불러 내여,

“부모 소양 가려느냐?”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 졌지만 어마마마 매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거동시위로 하여 주랴 구수덤 싸덤을 주랴?”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가겠나이다.”

사승포(四升布) 고의 적삼 오승포(五升布) 두루마기 짓고 쌍상토짜고 세패래이 닷죽 무쇠주랑 집흐시고 은지계에 금줄 걸어 매이시고 양전마마 수결(手決) 받아 바지끈에 매이시고,

34) 앞의 책, p.67~68.

“여섯 형님이여 삼천 궁녀들아 대왕양마마님께서 한날 한시에 승하 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거동(因山舉動) 내지 마라.”

…… 중략 ……

“천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 왔거니와 이제는 여덟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나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 아기는 걸니시고 어린 아기 업으시고,

무상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쫓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sup>35)</sup>

<이후의 줄거리>

바리공주가 돌아와 보니 왕과 왕비는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다. 바리공주가 약수로 살려 내자 왕은 바리공주의 소원대로 무신이 되어 무당의 제향을 받아먹도록 하고, 일곱 아들은 저승의 대왕이 되게 하고, 무상신선은 산신이 되게 한다.

교과서에 수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상 ‘바리공주-서울 배경재본’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 내용으로는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약수를 구하는 장면을 수록하였다. 이전 줄거리에서는 ‘국왕’과 ‘왕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원문 그대로 ‘어뵈대왕마마’와 ‘칠대중전마마’ 표현되어야 하며, ‘칭의 동자’ 역시 ‘여섯 칭의 동자’로 정확하게 수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문에서는 ‘바리공주’보다는 ‘칠공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줄거리’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활동에서 ‘친해지기’를 살펴보면 1번~3번까지는 내용을 다지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구성해놓았고, ‘시야 넓히기’에서는 ‘여성의 수난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로 바리공주의 주제를 고난 극복과 효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이광수의 <무정>’과 비교하는 활동과 ‘여성이 자

35) 김윤식 외, 7차 문학 교과서, 디딤돌, p.p.76~79.

신에게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통해 여성을 무시하는 관습과 제도를 비판했다.’는 해석을 두고 타당한지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을 교사용 지도서에서 살펴보면, <바리공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출하여 여성영웅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 과정을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려고 되어 있다. ‘표현하기’ 부분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바리공주>가 구연된 곳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소개하는 글을 작성할 것인지를 묻고 자유로운 글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의 핵심’에서는 <바리공주>가 한국 문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여성으로서 고난을 이겨낸 여성 수난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음, 희생을 통해 여성의 가치와 고귀함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사무가’이며, ‘죽은 혼령을 위로하는 지노귀곳에서 불렸으며, <바리공주>라는 무가의 주인공 이름이 바리공주이다.’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는데 갈래적인 면에서도 서사무가라는 언급만 있고 신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은 빠져 있었으며, 오구곳과 진오기곳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바리공주의 지역별 전승에 따른 명칭 변화 등의 언급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바리공주>의 내용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활동과 주제를 재차 확인하려는 활동이 전부였기에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무가 교육의 측면에서 제대로 학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었보였다.

## (2) 교학사(구), <바리데기> 동해안 무가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상	교학사(구)	1.문학의 본질	3) 문학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단원의 마무리) 보충학습-동해안무가 일부-
			학습목표: 1.문학 갈래의 개념과 구분 원리를 이해한다. 2.문학 작품의 갈래별 특성을 이해한다. 3.시대에 따른 문학 갈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1) 문학의 본질 (다) 문학의 갈래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교학사(구) 문학 교과서 (상)의 1단원명은 ‘문학의 본질’로 정하고 소단원을 1. 문학이란 무엇인가, 2. 문학은 왜 읽는가, 3. 문학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4. 문학은 무엇을 지향하는가로 나누어 구성했다.

7차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1) 문학의 본질 영역에서 (다) 문학의 갈래’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 문학의 갈래 내용은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와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번 내용에서는 문학의 기본 갈래를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문학 수용과 창작의 기초를 습득하도록 하기위해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하위 장르들의 작품을 접하고, 그들을 비교해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본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문학과 다른 나라의 문학의 여러 하위 갈래를 학습하고 하위 갈래들이 분화하는 이유와 원리, 하위 갈래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번 내용에서는 문학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갈래라는 체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문학 현상을 바라보는 상위적 시각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 문학의 하위 갈래 체계를 이해하고, 시대에 따른 갈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의 이유와 의의를 작품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와 연계될 수 있는 공통 기본 ‘국어’의 ‘문학’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8학년의 ‘8-문-(6) 여러 갈래의 글을 쓴다.’와 10학년의 ‘10-문-(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가 있다. 8학년에서는 문학의 갈래인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작품을 직접 창작해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즉, 여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산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할 수 있다. 10학년에서는 문학의 갈래는 단지 문학을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품을 수용하여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선정되었다. 즉, 여러 갈래의 작품을 읽어보고 갈래에 따라서 문학 작품의 미적 가치가 어떤 형태로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도록 한 것이다.

갈래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1단원 ‘문학의 본질’에 소단원 3의 ‘보충학습’에 <바리데기>의 ‘동해안 무가’를 일부분 수록해놓았다. ‘다음 글은 무가(巫歌) ‘바리데기’의 한 부분이다.’라고 명시하여 갈래를 짧게 소개하였는데 이는 서사무가, 무조신화로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동해안 무가’ 역시 각편명, 구송자, 조사자까지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한다고 본다.

(창으로 부름) 그 길로 돌아와 군노 사령(軍奴司令) 거동 보소.  
 문안드리오, 공주(公主)를 탄생했나이까, 태자(太子)를 탄생했나이  
 까.  
 이 때야 옥단춘이가 나가드니마는, 공주를 탄생했다고 분부를 아뢰  
 여라.  
 이 때야 군노 사령 그 질로 들어간다.  
 월령 소리 월령월령 방울 소리 당글당글  
 우루루루 들어가 대왕님 전(前)에 아뢴 적에  
 오귀 대왕님요, 대비마마 길대 부인이 공주를 탄생했나이다.

……중략……

이눔아 기눔아. 그 말이 진정어거들랑 애기를 두데기에 싸 가지고  
 저 천태산에 무명 산중엘 들어가게 되면 버드랑산이 있을 터이니 거  
 기 갖다가 버리라고 여쭙어라. 만일에 애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  
 으면 생벼락이 떨어진다고 여쭙어라.<sup>36)</sup>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바리공주-영일 김복순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에  
 서는 딸을 여섯 낳고, 일곱 번째는 아들을 바라지만 또 딸을 낳는 장면으로 시  
 작하여 일곱 번째 딸인 바리공주를 갖다 버리는 장면까지 수록해놓았다.

동해안 무가의 <바리데기> 명칭과 부모의 이름이 ‘오귀 대왕’과 ‘길대 부인’  
 으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보충학습에 수록된 만큼 무가의 내용을 짧게 소  
 개하고 갈래를 알아보는 정도로 끝을 맺고 추가되는 활동은 없다.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이 작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알  
 도록 유도하고 곳에서 사용되는 노래이며, 구비 전승되는 문학이라는 점을 고  
 려하여 서사무가의 특성을 인지시키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을 ‘예시 활동’으로 덧붙였는데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바리데기가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 버림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창이나 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도 존재한  
 다. 서정, 극, 교술 갈래와 비교할 때 작자의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서술자 없이 인물의 행동으로만 사건을 보여주는 것도

36) 구인환 외, 7차 문학 교과서, 교학사, p.p.94~95.

아니고, 작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므로, 이 작품은 서사 문학 갈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구비 전승되는 무가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 주술성이 있다.
- ② 신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신에게 바치는 노래이므로 신성성이 있다.
- ③ 노래이므로 율문성이 있다.
- ④ 무당에게만 전승되므로 구비 전승이 제한적이다.
- ⑤ 굿판의 특성상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락성이 있다.<sup>37)</sup>

‘예시 활동’을 살펴보면, 창과 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때 무당에 의해 구송되는 과정을 채록하는 무가의 현장성도 함께 언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바리데기>를 구비 전승되는 무가로 소개하고 있으며 특성을 소개하면서 신의 내력을 소개한다고는 하지만 신의 내력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무속신화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바리데기> 제재를 개관하는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리데기 무가는 오구굿에서 구연되는 무가인데, ‘바리데기’ 또는 ‘바리공주’는 ‘버려진 아이’나 ‘버려진 공주’라는 뜻이다. 이 무가는 ‘이승의 버림(부모로부터 버림받음)→이승과 저승 사이의 세계인 영계에서의 시련→이승으로 귀환하여 부모를 살림→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벌이나 무당이 뫼’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는 시련을 이겨 내고 영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반영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효’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하여 시련을 겪는 이야기는 설화 소설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티프다. 수향전, 적성외전 등의 조선 시대 소설에서 이 같은 삽화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출생부터 버림을 받고 시련을 겪는 것은 동양에서의 공통된 영웅의 일생과 상통하기도 한다.<sup>38)</sup>

바리데기 무가에 대한 설명에서 ‘바리데기’ 또는 ‘바리공주’로 ‘버려진 아이’ 혹은 ‘버려진 공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고, 전승되는

37) 구인환 외, 7차 문학 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p.141.

38) 위의 책, p.142.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제는 ‘효’라는 측면에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곳에 관한 설명이나 바리공주의 역할에 관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조동일<한국문학통사>’의 내용을 덧붙여놓아 서사 무가의 내용과 오구곳에 대한 내용, 혼령을 인도하는 바리공주의 역할을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다.

교학사(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는 보충학습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만 <바리공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보충 설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갈래의 특성만 알고 <바리공주>학습을 끝낼 수 있는 문제점이 보인다.

### (3) 블랙박스, <바리데기> 경북무가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상	블랙박스	1. 문학의 특성	2) 문학과 언어 작품읽기1. (2) 바리데기 -경북무가-
			학습목표: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문학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언어의 다양한 용법을 이해한다. 문학 작품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서의 가치를 이해한다. 문학에서 이차 상징으로서의 언어의 가치를 발견한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① 문학과 언어, 문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	

블랙박스 문학 교과서(상)의 1단원명은 ‘문학의 특성’으로 소단원을 1. 문학과 인생, 2. 문학과 언어로 구성해놓았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문학의 본질’에 (가)문학의 특성 중 ① 문학과 언어, 문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②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 로 선정해놓았는데, 이를 반영한 학습목표는 작품을 통해 그 속의 언어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구성해놓았다. 교육과정의 ①번 내용은 문학이 언어 예술이면서 인간의 삶의 한 양식임을 이해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학과 언어의 관계 이해하기, 언어의 다양한 용법 이해하기, 인식의 틀로서 언어의 가치 이해하기, 이차 상징으로서 문학의

가치 이해하기, 문학이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는 방식 이해하기, 문학에 담긴 삶의 가치 탐구하기 등으로 세부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②번 내용은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일 뿐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틀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개인과 집단의 세계관을 구체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여 ①번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와 연계된 공통 기본 ‘국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7학년의 ‘7-문-(2) 문학과 일상 언어의 관계를 이해한다.’와 8학년의 ‘8-문-(1) 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안다.’, 9학년의 ‘9-문-(4)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10학년의 ‘10-국-(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가 있다.

7학년의 연계된 내용을 보면,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학 언어가 일상 언어와 서로 다른 별개의 언어가 아니며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를 토대로 하여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언어 활동이 이뤄지고, 문학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인 언어 사용이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되어 있다. 8학년의 연계된 내용을 보면, 문학 작품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된 세계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을 파악하고,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가치를 파악하는 등의 학습요소를 담고 있다. 즉, 작품이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재창조되는 세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9학년의 연계된 내용은,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인생관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작품에 드러나 있는 작가의 인생관과 안목,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10학년에서는 ‘문학’이 아닌 ‘국어 지식’의 내용을 연계시켰는데, 언어와 우리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아는 학생들이 언어 사용의 가치를 알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알고 언어가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교과서 속의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소단원 2의 두 번째 작품으로 <바리데기> 경북 영일 지방 무가 (김복순 구술, 최정여·서대석 채록)를 수록해놓았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바리데기’는 서사무가로 민중의 소망을 굿을 통해 기원하는 노래’임을 밝히고 있다. <바리공주>가

수록된 7차 문학 교과서 중 유일하게 채록자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무가명도 <바리데기>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창] 그 길로 돌아와 군노 사령(軍奴司令) 거동 보소.

문안드리오, 공주(公主)를 탄생했나이까, 태자(太子)를 탄생했나이까.

이 때야 옥단춘이가 나가드니마는, 공주를 탄생했다고 분부를 아뢰여라.

이 때야 군노 사령 그 질로 들어간다.

월령 소리 월령월령 방울 소리 당글당글

우루루루 들어가 대왕님 전(前)에 아될 적에

오귀 대왕님요, 대비마마 길대 부인이 공주를 탄생했나이다. 옆드러서 훌쩍훌쩍 우니

[말] 여봐라. 그 말이 참말이나. 앉았다가 벌떡 일어서며 화랑 같은 고함을 지른다. 야야 이놈아, 그 말이 참말이나. 그 말이 참말이 거들랑 네가 나를 속이는 수가 있는구나.

딸을 여섯을 놓고 일곱여째 공들여 놓은 자식 아들을 놓게 되며는 명(命)길라고 원래 속이는 수가 있다마는 느그가 나를 놀리키느라고 그렇게 속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아무래도 공주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태자를 놓아 줘야 하니.

아이고 오귀 대왕님 앞에 누가 감히 속이오리까.

이놈아 기놈아. 그 말이 진정이거들랑 애기를 두데기에 싸가지고 저 천태산에 무명 산중엘 들어가게 되면 버드랑산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갔다가 버리라고 여쭙어라. 만일에 애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생벼락이 떨어진다고 여쭙어라.

……중략……

[창] 이 때야 거동 보소, 애기를 안고서 들어간다.

대궐 전으로 돌아 나와,

애기를 두데기에 싸가지고 나오는구나.

일국(一國)의 공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아이가-대문에 돌아 나와 가마 안으로 들어시라.

가마를 타고서 산중을 들어간다.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아이고오 내 딸이야.  
 반짝반짝 산 자신으로 어디 갖다가 버릴소냐.  
 어지러운 사바 세계 의지할 곳 바이 없어,  
 모든 미속(迷俗)을 다 버리고 산간 벽지를 찾아간다.  
 송죽(松竹) 바람도 쓸쓸히 불고요, 산새도 자로 슬피 운다.<sup>39)</sup>

앞서 살펴보았던 교학사(구)에 수록된 <바리데기>와 같은 작품을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교학사(구)에 수록된 <바리데기>에서는 동해안 무가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블랙박스에 수록된 <바리데기>에서는 정확한 전승 지역과 구술자와 채록자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교학사(구)에서는 [창]와 [말]을 풀어서 ‘창으로 부름’, ‘말로 함’으로 적었으나, 블랙박스에서는 원문 그대로 [창]과 [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곳에서 무당에 의해 구송되고 이를 채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창]과 [말]이라는 표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바리공주가 태어나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버림을 받는 장면을 수록해놓았는데 서울 지역에서 구연되는 진오기굿의 구연 장면을 사진으로 함께 제시해 두어 곳에서 구송되는 무가임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 무가의 주술성과 문학성

무가는 무속 제의에서 불리는 구비 문학의 일종으로, 여기에는 주술적인 기능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신을 청하고,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소원을 빚으로써 복을 얻고 재해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노래가 바로 무가이다.

그렇지만 무가가 주술적 기능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무가는 오락적·문학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 무가가 구연되는 ‘굿’은 종교적 의례의 장소일 뿐 아니라 집단적 축제의 마당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무가는, 신은 물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참다운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현전하는 많은 무가들이 문학적 흥미와 감동을 지니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sup>40)</sup>

참고자료에 ‘구비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설명하고, 무가가 구연되는 곳에

39) 한계전 외, 7차 문학 교사용 지도서, 블랙박스. p.p.35~36.

40) 위의 책, p.36.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충할 만큼의 오구곳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은 바리공주가 버려지는 과정을 담은 내용만 다루고 있어 그 외의 설명이 참고자료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2-(1)번에는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2-(2)번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고 2-(3)번에서는 현대시 작품인 강은교의 ‘바리데기의 여행 노래’를 찾아 읽고, 시의 언어 표현에 본래의 무가에 나타난 주술적 성격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2-(2)번과 같은 경우,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무가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어 무당이 굿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잡귀를 물리치거나 인간의 행운을 비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문학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다. ‘무가’의 구술 목적을 살펴보면 맞지만, 죽은 이를 천도하는 굿에서의 <바리공주>구술 목적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보였다.

[학습 도움 자료]

(2) 바리데기: 바리데기 무가는 오구풀이(전라도), 바리공주(서울), 칠공주(함경도)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서사 무가이다. 이 이름은 ‘브리다’에서 나온 말로, 즉 ‘버려진 아이’라는 뜻을 가진다. 서사 무가는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바리데기’는 ‘효(孝)’를 주제로 한 이야기로, 부모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하기 위해 시련을 겪고 모험을 하는 이야기이다.<sup>41)</sup>

‘학습 활동’이 끝나면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충 자료로써 ‘학습 도움 자료’를 수록해놓았는데 <바리공주>가 지역별로 무가명이 일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바리공주의 뜻이 ‘버려진 아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주제는 ‘효’로 설명하고, 여성 영웅적인 측면은 교사용 지도서에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도움 자료에 함께 언급될 필요성이 보인다.

교사용 지도서<sup>42)</sup>를 살펴보면, ‘작품개관’에서 바리공주를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바리공주>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활동’ 2-(3)번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사용 지도서에는 바리공주가

41) 앞의 책, p.37.

42) 한계전 외, 7차 문학 교사용 지도서, 블랙박스, p.p.59~65.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여 사람들의 한이 다스려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2-(3)번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사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해주어야 강은교의 ‘바리데기의 여행 노래’의 언어 표현에 나타난 본래의 무가의 주술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인다.

(4) 미래엔(대한교과서), <바리데기> 동해안 무가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하	미래엔(대한)	5. 한국 문학과 세계 문화	1) 한국 문학의 특징 (3) 바리데기
			학습목표: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갈래 체계를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질을 이해한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3) 문학과 문화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미래엔 문학 교과서 (하)의 5단원명은 ‘한국 문학과 세계 문화’으로 소단원은 1. 한국 문학의 특징, 2. 한국 문학의 흐름과 양상, 3. 세계 문학과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선택과목 ‘문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3) 문학과 문학의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은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 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①번의 내용은 한국 문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고, ②번의 내용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와 연계되는 공통 기본 ‘국어’의 ‘문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7학년의 ‘7-문-(5)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와 ‘7-문-(6) 작품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가 있으며, 8학년의 ‘8-문-(1) 작품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안다.’, 9학년의 ‘9-문-(2)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

정을 이해한다.’와 ‘9-문-(6)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가 있다. 10학년에서는 ‘10-문-(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가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미래엔 문학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관련 교육과정으로 10-문-(6)으로 적고 10-문-(7)의 내용을 적어두었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여 살펴봤을 때, 10-문-(6)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이기 때문에 10-문-(7)의 내용이 연계되는 것이 맞으므로 교사용 지도서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계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7학년의 ‘7-문-(5)’는 문학은 현실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서 그 시대의 현실이 그대로 문학에 투영되는 것은 아니며,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작가가 역사적 현실 상황을 파악해서 그 시대의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의미를 발견하고 작가 나름대로 시대상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 속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7-문-(6)’은 문학에서 인물의 행동은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어떤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이나 사고방식 등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작품의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인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8학년의 ‘8-문-(1)’은 문학 작품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세계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작품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9학년의 ‘9-문-(2)’는 한국 문학사가 단지 작품의 생산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이 아니라 문학 현상이 어떠한 역동성을 띠며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면서 그 작품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9-문-(6)’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및 현대 작품을 읽고, 한국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발견하여 이를 글로 써 보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한국 문학

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알고, 읽은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써 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10학년의 ‘10-문-(7)’은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민족적 전통성, 즉 언어의 단일성, 문학의 창조자와 수용자의 단일성,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동질성과 문학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성, 민족 문학을 한국 문학의 미래형으로 상징하기 위한 통일을 지향하는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선정되었다. 학습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바리공주>가 수록된 소단원 1의 (3)에 <바리데기>가 부분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앞에서 살펴본 교학사(구)와 블랙박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데기>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창] 이때야 거동 보소, 애기를 안고서 들어간다.

대궐 전으로 돌아 나와,

애기를 두 데기에 싸 가지고 나오는구나.

일국(一國)의 공주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아이가-대문에 돌아 나와 가마 안으로 들어시라.

가마를 타고서 산중을 들어간다.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아이고오 내 딸이야.

반짝반짝 산 자신으로 어디 갔다가 버릴소냐.

어지러운 사바 세계 의지할 곳 바이 없어,

모든 미속(迷俗)을 다 버리고 산간 벽지를 찾아간다.

송죽(松竹) 바람도 쓸쓸히 불고요, 산새도 자로 슬피 운다.

잊어라-부루기야.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심야 삼경(深夜三更) 깊은 밤에

단 돌이 울어 새워나 보자.

[말] 첩첩한 산중에 들어가야,

여기다 버릴까 저기다 버릴까 버릴 곳이 전혀 없네.

나무에 버리자니 날짐승이 무섭고

땅에다 버리자니 기는 짐승이 무섭고야.

여기다 버릴까? 저기다 버릴까? 하다가는 첩첩한 산중엘 들어

갔구나. 첩첩한 산중엘 들어가서 치어다 보니 만학천봉(萬壑

千峰) 그 산 이름이 저드랑산이라. 억바우야 덕바우야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있는데 바윗돌에 앉아서루, 여봐라 여기 잠시  
잠간 귀어 가자. 이 곳을 살펴보니 저드랑산인데 애기를 어디  
갔다 버리겠느냐?

애기를 품에 안고서루 방성통곡 울음을 울 적에  
그때여-여기다 버릴까? 저기다 버릴까 하다 보니 버릴 곳이  
전혀 없구나.

얼마만침 앉아서 울드라니 이왕지사 버리고 가는데, 내 딸이야,  
내 공주야 마지막으로 네가 젓이나 빨드니마는 잠이 들어 자  
는구나. 잠들어 자는이 자식을 참아 진정 버리고 가겠노?

그때야 거동보소. 너가 버렸다가 너와 나와 이별수가 생겨 이  
왕지사 버리고 가는 자식, 너와 나와 죽지 않고 만날 날이 있  
을라는지, 버렸다가 얻은 자식이라고 바리메기 이름이나 한  
번 지어보자.

그때야 속적삼을 내야 무명지 손가락으루 피를 내야 이름으루  
혈서를 쓴다. 버렸다가 얻은 자식이라 이름을 지어 가슴 속에  
다 여어 두고 그제서스 애기를 안고 방성통곡 울음 울다 보니  
난데 없이 구름이 등실등실 떠 오드니마는 막 번개가 치고 천  
둥이 치드니마는 비가 오기 시작한다.

사방에서는 비가 오건마는 애기 앉인 자리는 햇빛이 비치거늘  
이것도 하늘에서 받들어 주는 법이다. 그때야 부처님이 감동하  
여 하늘에서는 서기가 반공하드니마는 한짝 부리는 서쪽에다  
박아 놓고, 이때야 거동보소. 서천서역에서루 청학백학이 한 마  
리 날아오드니마는 머리말에 빙글빙글 돌드니마는 화락 같은  
바람을 호통을 치도록 마련하야 안고 있는 애기를 땅에 떨어뜨  
려 버렸구나.

몸뚱 놈의 이 짐승아. 아무리 니 밥이 되었을망정 사람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몹시 하느냐?

애기를 바싹 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 애기를 땅에 떨어  
뜨렸구나. 애기를 땅에 떨어트리다 보니 한짝 날개는 보따릴  
차고 한짝 날개는 애기를 차고 어디루 날아 갔는지 간 곳이 전  
혀 없을 적에.

[창] 그때야 내 딸이야 어디를 갔노? 내 딸이야.

자승이 중한 줄을 부모밖에 없는데

너를 이 산중에 버리고 가니 어이할꼬? 어이할꼬?

앞에서 살펴본 교학사(구)와 블랙박스 문학 교과서 수록된 <바리데기>의 내용은 바리공주가 딸임을 알고 버리는 과정을 수록했다면, 미래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데기>는 딸임을 알고 버리는 과정에서 길대 부인이 딸을 앓고 슬퍼하는 모습과 아이의 이름을 바리데기로 짓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록해놓았다.

[이해와 감상]

‘바리데기’는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무가로서, 사람이 죽은 뒤 49일 안에 지내는 ‘지노귀굿(오구굿)’에서 가창되는 구비 문학 작품이다. 오구굿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행해지는 전통 무속 제의이다. 따라서 ‘바리데기’에는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내세관은 물론, 그러한 내세[관이 등장하게 된 현실 세계의 경험 구조와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바리데기’는 바리데기라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일곱 번째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바리데기는 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마침내 이를 극복하고 가족과 재회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원해 내는 영웅적 인물이다. 이와 같은 ‘고귀한 출생-버려짐(棄兒)-고난의 반복-과제의 달성-신이 됨’이라는 서사구조는 고대 건국 신화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우리의 서사 문학의 특징이다.<sup>44)</sup>

‘이해와 감상’에서는 지노귀굿(오구굿)을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바리데기>는 굿에서 가창되는 구비 문학 작품이라는 점과 고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구해내는 영웅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sup>45)</sup>를 살펴보면,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굿’이나 ‘무가’는 현대적 관점에서 ‘미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교적 차원을 떠나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는 관점에서 ‘바리데기’가 민속·문학적으로 훌륭한 문화적 유산임을 이해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오구굿이 단순히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굿이라고 설명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오구굿의 절차나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전승되어 온 것, <바리공주>와 굿과의 상관성, 우리 민족에게 굿이

43) 오세영 외, 7차 문학 교과서, 미래엔(대한), p.p.92~94.

44) 위의 책, p.94.

45) 오세영 외, 7차 문학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대한), p.p.164~167.

가지는 의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굿'과 '무가'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미신'이 아닌 훌륭한 문화적 유산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활동<sup>46)</sup> '수용과 내면화'를 살펴보면, 1번에서 주인공의 이름에 담긴 한국인의 독특한 풍속을 찾고, 버려진 바리데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은 누구의 도움이며, 이때 알 수 있는 당대 민중들의 세계관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2번에서는 바리데기의 줄거리를 화소별로 정리하여, '탄생-버려짐-고난-목적 달성-신이 됨'의 단계로 나누어보도록 하였으며, '홍길동전'의 줄거리와 '바리데기'의 줄거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도록 구성하였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바리데기' 이름에 담긴 뜻과 버려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초월 세계의 개입이 때문이었고 이 초월 세계란 그 시대의 민중들이 현실 세계의 억압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욕망이 반영된 것임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줄거리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성 영웅적인 면모를 주제로 삼는 것은 앞서 살펴본 문학 교과서들의 내용과 주제 중심의 학습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총 4편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를 살펴보았는데, 서울지역 전승본을 수록한 디딤돌 문학 교과서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편은 동일한 동해안 지역 전승본을 수록 부분만 다르게 하여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각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서울본과 동해안 지역본을 반복하여 수록하고 있는 문제점이 보였다. 물론 가장 문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서울본과 동해안 지역본을 교과서에 반복하여 사용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서울본과 동해안 지역본만을 고집하여 수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교육과정을 반영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단원의 목표로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추구하는 목표는 대개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동일했다. 당대의 민중들의 세계관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바리공주> 이름에 얽힌 내용을 확인한다던가, '효'와 '여성 영웅'의 측면을 주제로 삼아 강조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바뀌어온 이전의 교육과정 속의 <바리공주>를 소재로 한 무가 교육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서사무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공주>는 7차 교육과정 중 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만큼, 선택 과목 '문학'을 접하게 되는 고등학교

46) 오세영외, 7차 문학 교과서, 미래엔(대한), p.95.

교 2학년 학습자들은 이미 중학교에서부터 한 번 짚은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리공주>를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학습시키려 한다면 학습자는 이전의 기억을 되새김하는 정도의 효과만 볼 뿐 그 이상의 학습 효과를 얻기 힘들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 2. 2009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 ‘문학’

### 1) 교육과정의 성격 및 내용 체계<sup>47)</sup>

‘문학 I’과 ‘문학 II’은 2007년 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을 재구조화하여 만든 과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문학’에 ‘매체 언어’과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교수·학습 과정의 학습 중점과 내용상의 연계를 고려해서 ‘문학 I’과 ‘문학 II’를 구성하였다. ‘문학 I’은 우선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국어’의 목표와 ‘문학’영역의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이 ‘창조적인 국어 활동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문학은 실제 맥락 속에서 인간과 삶과 사회에 작용될 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I’은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고자 설정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I’의 학습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로 ‘문학 I’ 과목이 국어과 교육의 전체 체계 속에 차지하는 위상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문학 I’은 공통 교육과정 9학년까지의 ‘국어’의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교수 방법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선택과목과도 연계를 두었다. 둘째로는 ‘문학 I’의 교육 목적을 학습자가 문학 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문학 주체로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로는 ‘문학 I’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개념을 언어 예술, 소통 행위 및 문화의 한 양식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개념 규정의 까닭은 문학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문학의 가치가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삶의 향상 및 문화 발전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문학의 실질적인 기여를 강조했다. 다섯째로 문학 교육의 효능으로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 신장, 정서 및 심미의식 함양과 가치관 확립,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의 발전을 제시하였는데, 문학교육이 국어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문학 I’의 학습 중점이 문학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실천적인 문학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직접 문학 수용과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문학 경험을 누적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학 I’의 목표는 전문에서는 ‘문학 I’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세가지의 세부 목표에서는 지식, 활동, 태도의 범주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47)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p.p.237~271.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 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문에 제시된 ‘문학 I’의 목표는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 항목은 문학에 대한 지식, 문학 경험, 능동적인 문학 활동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험적인 측면은 문학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학습이 현실성을 가진 것임을 강조한 것이고 문학의 생산과 수용이 인간의 의미 있는 경험의 하나로 인식될 때 문학의 실질적인 가치가 구현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나’ 항목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 언어에 대한 통찰력, 창의적인 사고력과 소통 능력이 주요 내용이다. 이전의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의 목표였던 ‘수용’과 ‘창작’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작’과 ‘생산’으로 확대하여 작품의 창작뿐만 아니라 작품의 다양한 응용 활동도 문학의 활동에 포함시켰다. ‘다’ 항목은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문학 향유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형성하면 문학을 포함한 문학의 발전과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문학 II’의 목표에서는 ‘문학 I’과 동일하게 전문에는 ‘문학 II’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세 가지의 세부 목표에서는 지식, 활동, 태도의 범주에서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 I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나. 문학의 실제적 제 양상을 이해하여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심미적 안목을 높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문에 제시된 ‘문학 II’의 목표는 문학 이해와 경험, 자아, 공동체의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들이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가’ 항목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 문학 경험, 능동적인 문학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문학 경험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문학 학습을 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문학의 생산과 수용 경험이 인간의 의미 있는 경험의 하나로 인식될 때 문학의 실질적인 가치가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 항목에서는 문학의 실제적 제 양상에 대한 이해, 문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 문학에 대한 심미적 안목 향상이 주요 내용이다. 개별적인 작품으로 문학의 실체는 구현될 수 있으며, 이 개별적인 작품들은 구체적인 시·공간의 특정한 문제와 관련되며 더 나아가 개별 민족과 국가의 문학사를 형성하며 동시에 이웃 민족과 국가까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다’ 항목은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의 향유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학 향유를 생활화 하는 태도를 형성하면 문화의 발전과 공동체 자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I’과 ‘문학 II’의 내용 체계는 문학의 성격과 문학교육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식과 활동과 맥락을 종합하여 구성해놓았다.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의 ‘문학 I’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p>문학의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개념</li> <li>○ 문학의 역할</li> <li>○ 문학의 갈래</li> </ul>
<p>문학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의 수용</li> <li>○ 문학의 생산</li> <li>○ 문학과 매체</li> </ul>

‘문학의 성격’은 문학 일반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고 여기에 속하는 내용들은 ‘~을 이해한다.’는 형태로 기술하여 문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문학 활동’은 문학의수용, 생산의 원리,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수용, 생산, 매체 활용을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역시나 ‘~이해한다’의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대부분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로 기술하여 문학 활동을 실천하도록 강조했다.

‘문학Ⅰ’ 과 ‘문학Ⅱ’의 내용 체계는 문학의 성격과 문학교육의 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는데 문학의 본질에 대한 지식 목표를 추구하는 ‘문학의 성격’과 문학 활동 능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문학 활동’이 ‘문학Ⅰ’의 범주로 설정하였다면, ‘문학Ⅱ’에서는 문학의 실체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문학의 위상’과 인간의 실천적 삶과 문학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향하는 ‘문학과 삶’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문학의 위상’과 ‘문학의 삶’은 공통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며, ‘문학Ⅰ’과는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은 작품을 중심으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을 내용 영역으로 체계화했는데, ‘문학Ⅱ’ 과목은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지식’을 ‘문학의 위상’ 범주로 심화시키고, ‘맥락’ 범주를 개별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으로 귀속시키고 대신 ‘문학과 삶’의 범주로 새롭게 설정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다층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실천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Ⅱ’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p>문학의 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li> <li>○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li> <li>○ 한국 문학의 세계화</li> </ul>
---

<p>문학과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과 자아</li> <li>○ 문학과 공동체</li> <li>○ 문학과 문화</li> </ul>
--

‘문학의 위상’은 문학의 실체를 한국 문학, 세계 문학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며 이 영역의 내용은 ‘~을 이해한다’ 형태로 기술하여 지식 습득을 목표로 두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작품 수용을 중심 교육을 지향하며 ‘문학과 삶’은 기존의 ‘문학의 태도’에 더하여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나 내용들이 개인과 공동체 여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고, 문학 활동을 통해 수행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 2)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 현황

2009 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하), 지학사(권) 문학 교과서(하), 창비 문학 교과서(하) 총 3편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3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는 <바리공주>를 살펴보고, 제시되어 있는 대단원과 소단원,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의 구성이 적절한가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지적한 무가 교육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를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해냄에듀, <바리데기> 서울 배경재 구연본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하)	해냄에듀	2. 한국 문학의 이해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바리데기-경기 배경재 구연본
			학습목표: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한국 문학의 영역을 이해한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1) 문학의 위상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한다. ②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의 문학을 이해한다.	

해냄에듀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하)에 2단원명은 ‘한국 문학의 이해’로 소단원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2. 한국 문학은 어디까지인가, 로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문학Ⅱ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문학의 위상에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한다, ②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의 문학을 이해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①의 내용은 한국 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 문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할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②의 내용은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대표적인 작품의 수용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뤄져 왔으므로 그 중에 대표성을 갖거나 널리 인정되는 논의를 교육 내용으로 수용하여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전통과 특질을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의 내용은 학습자가 한국 문학의 대내적 다양성과 대외적 전개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학에 대해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현재의 지방화 시대 및 세계화 시대와 다가올 통일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문학 교과서에 구현된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소단원 1의 첫 번째 작품으로 ‘경기 오산 배경제 구연본’으로 <바리데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리공주> 채록 현황’을 보면 ‘배경제 구연본’은 서울 지역 전승으로 되어 있으며 무가명도 <바리공주>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리공주 전집<sup>48)</sup>에 수록된 ‘바리공주 서울 배경제본’에서도 무가명을 ‘바리공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의 내용을 살펴봐도 바리공주 전집의 139쪽 21번째 줄의 ‘칠공주 불너내여 부모 소양 갈여는야’에서 143쪽의 22번째 줄의 ‘한몸이 와서 아홉몸이 돌아가오’까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해냄에듀 교과서의 <바리데기> 무가명은 <바리공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배경제 구연본’의 지역 표기도 원문과 동일하게 ‘서울 배경제본’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8) 홍태한(1997), 『바리공주 전집 1권』, 민속원, p.p.117~149.

<앞부분 줄거리>

옛날 불라국 오구 대왕이 길대 부인과 혼인하여 십 년이 지난 후 연이어 여섯 명의 딸을 낳는다. 아들을 낳기 위해 노장 스님의 말에 따라 백일기도를 드려도 또 딸을 낳자, 오구 대왕은 부인을 시켜 일곱 번째 딸을 버린다. 버려진 딸 바리데기는 산신령에게 구출되어 양육된다. 바리데기가 십오 세가 되었을 때 오구 대왕은 병이 들고 온갖 치료를 다해도 낫지 않는다. 이때 노장 스님이 와서 서천 서역에서 약수를 구해 와야 대왕을 살릴 수 있다고 알려 준다. 부인이 여섯 명의 딸에게 약수를 구하러 갈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못 가겠다고 한다. 꿈속에서 노장 스님의 계시를 받은 부인은 직접 들과 산으로 찾아다닌 끝에 결국 바리데기를 만난다. 집으로 돌아온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약수를 구하러 서천서역으로 떠난다.

칠공주 불러내어, 부모 소양 가려느냐?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 졌지만은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거동 시위로 하여 주랴, 구수덩 싸덩을 주랴?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가겠나이다.

사승포(四升布) 고의적삼, 오승포(五升布) 두루마기 짓고

쌍상토 짜고, 세 패랭이 닷죽 무쇠 주랑 짚으시고

은 지계에 금줄 걸어 매이시고

양전마마 수결(手決)받아, 바지끈에 매이시고

여섯 형님이여, 삼천 궁녀들아

대왕 양 마마님께서 한낱한시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거동(因山舉動) 내지 마라.

양전마마께 하직하고, 여섯 형님께 하직하고

칼문 밖을 내달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할너라

……중략……

그대 깃던 물 약려수이니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 베던 나무는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물 구경도 경이 없고.

뒷동산의 꽃구경하고 가오, 꽃구경도 경이 없소.  
 전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 왔거니와  
 이제는 여덟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리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아기는 견게 하고, 어린 아기는 업으시고  
 무상 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쫓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sup>49)</sup>

<뒷부분 줄거리>

바리데기가 약수와 나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다. 급히 상여를 막아 궁 안으로 되돌려 보내고 약  
 수와 나무로 부모를 되살린다. 임금은 바리데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  
 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바리데기는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떠올리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당이 되기  
 로 결심한다. 그리고 궁궐을 떠나 무당의 조상인 무조신이 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으로 표기해 놓았는데 원문에는  
 ‘어뷔대왕’과 ‘칠대중전마마’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비  
 리공덕할아버지’와 ‘비리공덕할미’에 의해 구출되어 양육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  
 혀야 한다. 노장스님이 와서 서천서역국에서 약수를 구해야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원문에는 ‘양전마마가 한날 한시에 몽사를 어드시니 대명전 들보  
 에서 여섯 청의 동자가 날여와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  
 문에는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왕비가  
 직접 찾아다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수정되어야 한다.

해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의 발췌 부분은 7차 교육과정의 디  
 덤돌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부분으로 확인된다. 이후의 줄거리  
 에서도 일곱 아들과 무상 신선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바리데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遷度)하기 위해 행하던 굿(오

49) 조정래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p.p.94~99.

구곳, 지노귀곳)에서 구연된 무가이다. 이 무가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바리공주’, ‘베리공주’, ‘바리데기’, ‘칠공주’, ‘오구풀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바리데기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사 무가이고, 바리데기가 무신(巫神)이 된 사연을 노래한 것이므로 무속 신화(巫俗神話)이기도 하다.

바리데기는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죽은 부모를 되살리고 고통받는 영혼을 천도한다. 이런 점에서 바리데기는 구원의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녀는 서천 서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갖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으나, 이 과정을 거쳤기에 목적을 이루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시련과 고통이 미래의 힘이 되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고귀한 혈통→어려서 버려짐→양육자에 의한 구출→고난을 겪음→조력자의 도움→목적 이룸’ 등의 내용 요소는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흡사하다. ‘주몽 신화’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구조는 이후에 ‘유충렬전’, ‘조웅전’ 등으로 이어졌다.<sup>50)</sup>

‘감상의 날개’에 수록된 <바리공주>의 설명을 살펴보면, 우선 <바리공주> 무가가 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디딤돌 문학 교과서에서도 <바리공주>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이다’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바리공주>의 또 다른 무가명에 대하여 열거해 놓았는데, 지역에 따라 무가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덧붙여놓았더라면, 교과서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바리공주>, <바리데기> 등의 무가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문점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무가의 전승의 특징도 학습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1~4’를 살펴보면, 먼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바리공주>의 작품 선정 이유를 ‘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비 문학의 성격과 전승 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학습 활동은 1번에서는 먼저 내용정리를 하고 있으며, 활동 3번에서는 <바리공주>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의의를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2번과 4번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앞의 책, p.103.

[활동2]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바리데기’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보자.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문자를 통해 기록물로 전달되는 문학이 아니라, 입을 통해 말로 전달되는 문학이다. 이러한 구비 문학은 문자를 통한 기록 문학의 원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활동4] 4명이 한 모듬을 만들고 다음의 방법으로 모듬 활동을 해보자.

<방법>

- ① 첫 번째 친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친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② 이야기를 전달받은 친구는 다시 오른쪽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③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은 친구는 그 이야기를 정리한다.
- ④ 모듬원이 모여 자신이 전달한 이야기가 친구가 기록한 이야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해 본다.
- 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친구들과 토의해 본다.<sup>51)</sup>

활동2번의 경우에는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를 참고하여 <바리공주>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전승의 특징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진오기굿에 관하여 모듈별로 조사를 하고 진오기굿의 과정에서 <바리공주>가 구송되는 부분까지 학습해본다면 지금까지의 내용과 주제에 국한되어 있던 활동에서 좀 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활동 4번의 경우에는 구비 문학의 전승 과정상 특징을 체험해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비문학의 특성상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전승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장성과 즉흥성, 가변성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점에서는 이전의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된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구비문학에 속하는 어떠한 작품이든 해당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의 작품과는 별개의 형태가 아닌 <바리공주>의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을 고안했다면 <바리공주>의 학습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활동을 재구성하여 <바리공주>의 내용을 대본으로 구성하고 이를 목소리로 연극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녹음한 성과물

51) 앞의 책, p.100.

을 조별로 청취하여 같은 텍스트라도 현장과 연극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이는 구비문학의 특성도 학습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바리공주>의 내용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이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지학사(권), <바리공주> 평택 노재용 구술본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하)	지학사(권)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1) 한국 문학의 개념 (3) 바리공주-평택 노재용 구술본
			학습목표: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의 지역 문학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문학에서의 한민족 문학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1) 문학의 위상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한다. ②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을 이해한다.	

지학사(권)의 문학 교과서(하) 1단원명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로 소단원 1.한국 문학의 개념, 2.한국 문학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문학Ⅱ의 살펴보면, (1) 문학의 위상에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한다, ②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의 문학을 이해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중 <바리공주>가 수록된 3종의 교과서가 반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모두 (1) 문학의 위상의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로 동일함으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1단원의 (1)에 세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바리공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왕국의 국왕이 혼인을 하기 위해 간택 문복을 한다. 내년  
에 혼인하면 왕자 셋을 낳고 금년에 혼인하면 공주 일곱을 낳으리라

는 점괘가 나왔지만, 왕은 하루가 급하다며 당장 간택을 하도록 하고 혼인을 한다. 결국 점쟁이의 말대로 왕비는 공주만 여섯을 낳게 된다. 왕과 왕비는 온갖 정성을 바치지만 일곱째마저 공주로 태어난다. 화가 난 왕은 일곱째 공주를 버리라고 명령하고, 아기는 후원에 버려지지만, 이 아기를 짐승들이 보호한다. 이에 왕은 아기를 옥함에다 넣어 물에 띄워 버리도록 하는데, 석가세존이 이 옥함을 건진다. 석가세존은 여자를 제자로 삼을 수는 없어서 비력공덕 할아범과 비력공덕 할미에게 아기를 데려가서 기르도록 한다.

비력공덕 할멈 비력공덕 할아범 살어가고 공덕으로 살았는데  
한 날은 애기씨가 아홉 살이 되었건만은  
한 자 두 자 백 자 천 자 무불통지(無不通知)를 하였구나.  
배우지 않은 글이 저절로 통달이 되어  
한 날은 애기씨 하는 말이  
“비력공덕 할아범 비력공덕 할멈 뒷동산에 날짐승 길짐승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건만 나는 아버지 수이가 어드메요, 어머니 수이가  
어드메요.”  
비력공덕 할멈 비력공덕 할아범 하는 말이  
“하늘이 아버지 수이라 땅이 어머니 수이라.”  
“그런 말씀 마오. 하늘과 땅이 합해서 어찌 인간을 탄생한단 말이오.”  
“그러하면 전라도 남원 참죽나무가 아버지 수이라, 뒷동산 엄나무가  
어머니 수이로구려.”  
“또 거짓말 마오.”  
“그러하면은 뒷동산 산천초목이 이슬을 내려서 인간 탄생을 점지한  
다.”

……중략……

철공주 불러들여서, “부모 소양 가라느냐?”  
“우에 여섯 형님들 못 가는데 소녀는 어찌 가오라마는, 하루아침 아버  
님 뼈를 비고 어머님 살을 비고 십삭식 배를 빌려 탄생하였으니 부모  
은공이 없을소냐, 소녀가 가오리라.”  
대왕마마 하시는 말씀,  
“구수등을 다령할가, 쌍등을 다령하랴?  
철공주 하시는 말씀이.  
“구수등, 쌍등도 나는 싫고 무쇠 신 다섯 켤레, 무쇠 두루마기 다섯

별이요, 무쇠 패랭이 다섯 개만 찹지하여 주오.”  
 무쇠 신발 다섯 켤레, 무쇠 두루마기 다섯 벌과 무쇠 빙거지 다섯 켤  
 을 한꺼번에 신으시고 입으시고 쓰시더니, 여섯 형님들 불러,  
 “내가 부모 소양 간죽, 석삼년이 되어 아니 돌아와도 대왕마마 인산  
 거등 모시지 마오.”<sup>52)</sup>

<뒷부분 줄거리>

약류수를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간 바리공주는 갖은 고난을 겪으며  
 무상 신선을 찾아간다. 바리공주는 무상 신선의 요구에 따라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또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아 준다. 아들 일곱과 무상  
 신선을 데리고 돌아가던 바리공주는 왕의 인산 거등을 만나서 무상  
 신선에게서 얻은 약류수로 부모를 되살려 낸다. 이후 바리공주는 그  
 자신의 소원에 따라 무신이 되고 일곱 아들은 저승의 대왕이 된다.

‘국왕’과 ‘왕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 따라 ‘대왕마마’와 ‘중전마마’  
 로 수정되어야 하며, 아기를 짐승들이 보호하는 한다고 하였으나 원문에는 하  
 늘에서 청학 백학이 내려와 날개로 덮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석가세존이  
 옥함을 건진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원문에는 ‘옥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되어  
 야 한다. 그리고 원문에는 ‘옥합에다가 이름 석자 적으시라 새겨라 하오시니 버  
 린다 버리데기 던진다 던진데기 나라자손 칠공주라 적으시고’라고 되어 있으므  
 로 학습활동 1번의 ‘바리공주는 부모에게 버림 받았다고 해서 ’바리데기‘로 불  
 린다’는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중심내용을 바리공주가 비력공덕 할멈과 비력공덕 할아범에  
 의해 키워지고,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과 대왕마마가 병석에  
 누워 그를 살리기 위해 바리공주가 약수를 찾아 떠나는 장면까지를 본문에 실  
 어놓았다.

이 작품은 무신(巫神)의 내력을 서술한 서사 무가로 죽은 사람의 소  
 원이나 원한을 풀어 주고 극락에 가도록 기원하는 오구굿의 무속 의  
 식에서 비롯된다. ‘제석본풀이’와 함께 오늘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전  
 승되고 있다. 여성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  
 학의 전통과 관련시켜 해석할 만하다고 평가된다.<sup>53)</sup>

52) 권영민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지학사, p.p.39~43.

53) 위의 책, p.44.

작품의 설명을 짧게 수록해놓았는데 ‘오늘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로 명확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1번에는 바리공주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 ‘바리데기’라고 불린다는 설명을 하고, 부모가 바리공주를 다시 찾으려고 한 이유와 바리공주의 영웅적 면모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은 <바리공주>에 나타나는 구비 문학적 성격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문자를 갖기 이전의 구비 시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여 구비 문학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와 연관지어 <바리공주>가 문자로 쓰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바리공주’는 흔히 죽은 사람의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이 있는 곳인 ‘진오귀곳(오구곳)’에서 공연되던 서사 무가이다. ‘서사 무가’란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 가운데 서사성을 갖춘 작품을 말한다. ‘바리공주’가 서사성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모시는 무신(巫神)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당은 굿을 진행하면서 무가를 부름으로써 무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신으로서의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sup>54)</sup>

2번 활동을 위해서 <바리공주>가 진오기곳(오구곳)에서 구송되는 무가이며, 서사성을 갖춘 서사무가라는 사실과 무속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바리공주>가 구비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래될 수 있었던 것의 중심에는 무당이 있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활동은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읽고, 서사 무가 <바리공주>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바리공주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사회적 제도의 희생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희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지만 ‘효’와 ‘고난을 극복한 여성 영웅적 면모’의 주제를 점검하는 활동에 그쳐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보여준 학습 활동과 크게 다른 면을 찾지 못했다.

---

54) 앞의 책, p.44.

(3) 창비, <바리데기> 동해안 무가

과목	구분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문학	(하)	창비	1. 한국 문학의 위상	1) 한국 문학의 범위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01-바리데기-김복순 구술-동해안무가-
			학습목표: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를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지향을 이해할 수 있다.	
			<b>교육과정 영역별 내용</b>	
			(1) 문학의 위상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영역, 갈래, 역사를 이해한다. ②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③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을 이해한다.	

창비 문학 교과서(하)의 1단원명은 ‘한국 문학의 위상’으로 소단원1. 한국 문학의 범’, 2.한국 문학의 세계화로 구성되어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Ⅱ의 내용 중 (1) 문학의 위상의 (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세부내용을 문학 교과서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두 교과서와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다.

소단원1의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바리데기를 살펴보면, ‘김복순 구술, 최정여·서대석 채록본’을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에 오귀 대왕과 길대 부인이 혼인하여 일곱 번째 딸을 낳고, 딸을 산 속에 버리고부터 오귀 대왕은 앓기 시작하는 내용과 바리데기가 약물을 구하러 서천 서역국으로 향하는 내용,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 내고 서역국에 도착한 바리데기가 약수터를 지키는 동수자를 만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다부사리 꽃과 거북이의 입에서 나온 거북뽕(거북뽕)에 열 방울의 약물을 얻게 된다는 내용까지 요약되어 있다.

[말]

행상(行喪) 망틀 부여잡고

“아이고 아부지 아부지여. 배리데기 약수 삼천 리 약물 지러 왔나이다  
아부지여. 정신을 차려 소녀를 모읍소서.”

행상 망틀 부여잡고 방성통곡(放聲痛哭)우니 딸년들이 좋다고 흰 덩  
을 타고 나오고 사우 여섯이 좋다고 흰 덩을 타고 나오고, 그 증시는

행사이 안 가고 멈추고 있으니 배리데기 약수 삼천 리 약물 지러 왔다 하니,

“그년이 어디 가서 서방 불러 아들 삼 형제 놓고 왔지 약물은 무슨 약물.”

“저년이 약물 지러 왔거들랑 빼뜰어 놓고 저년을 붙잡아다가 옥에다 하옥시키라.”한다.

그 즉세서는 행상이 떠나는구나.

그 질루서는 가슴 속에 진언(眞言) 책을 내어 진언을 쳐 놓니 가든 행상이 그 자리에 마 딱 들러붙어 버린다.

……중략……

이때여 꽃가마를 갖다 놓고 오귀 대왕님 모시고 궁전 안을 들어가야 용상좌계 좌정(坐定)해야 금관을 높이 쓰고

“날 살린 사람이 그 뉘기냐? 어서 바빠 대령하여라.”

문문백관들이 겁을 해야 벌벌 떨고 있을 적에,

배리데기 거동 보소. 거적자리에다 작두를 가져온다.

거적자리틀 펴 놓고 작두에다 목을 얹어 놓고 하는 말이

“아부지여 아부지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불효자식을 죽여 주옵소서. 약수 삼천 리 갔더니마는 동두산 동두천에 동수자를 만나 아들 삼 형제 놓고 부모 허락 없이 청실 띄우고 홍실 띄웠는 불효자식을 죽여 주옵소서.”

그 말을 듣더니마는 배리데기가 살아 왔단 말을 듣더니마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우루루 달려간다.

우루루 달려간다. 우루루 달려간다.

우루루 달려가더니마는 배리데기 목을 안고 엎어지며

“아이구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죽으라고 버린 자식 병든 부모를 찾아서 약수 삼천 리 먼먼 길에 약물 지러 와가서루 죽었던 애비를 살렸는데 네가 또 무슨 죄를 지었던 말이고?”

“아부지요. 소녀를 죽여 주옵소서. 약수 삼천 리 먼먼 길에 약물 지러 갔다가 동수자를 만나 아들 삼 형제를 놓고 왔으니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으며 이런 죽일 년이 어디 있겠나?”

“야야 그 말 마르라. 친손 봉사(封祀)는 못할망정 외손봉사(外孫奉祀)는 못하겠나? 아들 삼 형제 어디 있단 말이고? 야야 듣던 말 중 참

반가운 일로구나.“<sup>55)</sup>

바리데기가 부모를 살릴 약수를 찾아 돌아와 부모를 살리고 살아난 부모와 재회를 하는 장면을 발췌하여 수록해놓았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문학 교과서의 수록된 <바리공주>의 내용이 주로 버려지는 장면이거나 버려졌던 바리공주가 부모의 약수를 찾기 위해 떠나는 장면, 약수를 구하는 동안의 여정을 발췌하여 수록해놓았다면 창비 문학 교과서는 ‘뒷부분 줄거리’에 주로 수록되었던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고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다뤘다는 점은 다른 문학 교과서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sup>56)</sup>의 ‘제재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바리데기>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구비 전승된 서사 무가로, 한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에 소단원의 제재로 선정한다.’고 정확하게 전승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바리데기>의 결말부분에 오귀 대왕을 보지 못하게 막던 문무백 관과 언니들이 바리데기가 진언을 외자 바리데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망가는 장면을 소개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로 ‘해학과 풍자’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병에 걸린 아버지를 살리는 바리데기의 모습에서는 ‘죽음과 구원’을 확인하게 하고, 자신을 버린 오귀 대왕을 위해 약수를 구해 온 바리데기와 바리데기가 낳은 자식을 받아들이는 오귀 대왕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활동하기’에서는 활동1의 ‘바리데기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구원하는 심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해 보자.’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인물의 심정을 짐작해보도록 하는 것에 학습의 중점을 두었으며, 활동2의 ‘바리데기를 버린 오귀 대왕이 바리데기가 낳은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는 물음을 통해 ‘용서와 화해’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3에서는 서사 무가의 갈래적 특징을 찾아보는 것으로, 말과 창으로 이루어진 서사 무가의 구성 방식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주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4는 <바리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모노드라마 ‘바리데기 바리공주’를 제시하고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재창조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바리공주>를 한국 문학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방안으로써 현대적 재해석을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바리공주>와 오구굿

55) 박종호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창비, p.p.16~19.

56) 박종호 외, 2009개정 문학 교사용 지도서, 창비, p.p.61~65.

에 관한 설명을 다른 문학 교과서들에 비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먼저 <바리공주>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바리공주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짚고 난 후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활동이 이뤄져야 학습자로 하여금 더 올바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를 살펴보았다.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바리공주>는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고, 7차 교육과정의 무가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과 주제 확인 중심의 활동이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창비 문학 교과서처럼 기존에 항상 제시하던 서사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수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통해 <바리공주>를 해석해보려는 시도로 보이며, 학습 활동에서도 ‘내용’을 점검하고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가볍게 확인하고 주로 활동 3번이나 4번에서 구비문학의 전승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이라든지, 한국 문학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현대적 재해석을 해 보는 활동이라든지, 인물의 심정을 파악하거나 용서와 화해의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등 좀 더 여러 방향으로 <바리공주>를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굿과 <바리공주>를 연관 지어 학습하거나 서울과 동해안 지역의 전승본 외의 각편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은 7차의 문제점에서 전혀 개선된 바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서사 무가의 내용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무가 교육이 아닌, 무가를 언급하기 전에 굿이 전승되어 온 과정과 무당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굿 속에서 무가를 언급하고 그 안에 담겨진 <바리공주>의 형태로 큰 테두리 안에서 점차 좁혀져 들어오는 형태의 무가 교육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 IV.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 1. 진오기굿 연극적 요소

<바리공주>는 진오기굿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이다. 선학들은 <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홍태한<sup>57)</sup>은 <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진오기굿은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망자천도굿을 의미한다. 진오기굿, 지노귀굿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까지 그 뜻이 명확하지는 않다. 진오기굿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자리걸이 진오기: 망자가 죽은 곳에서 하는 진오기굿으로 삼우제를 지내기 전에 하는 진오기굿을 말한다.

② 진진오기: 망자가 죽은 지 백일 이내에 하는 진오기굿을 말한다. 지금은 대개 일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 진진오기라 한다.

③ 묵은진오기: 망자가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하는 굿을 말한다.

김헌선<sup>58)</sup>은 <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바리공주>는 <말미>라고 일컬으며, <바리공주>를 연행하는 전반적인 제의 절차를 ‘말미 드린다’고 일컫는다. <바리공주>는 삶의 노래가 아니라 죽음의 노래이다. 바리공주는 죽은 이의 넋을 저승까지 안내하는 구실을 하므로 죽음의 노래 가운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 <바리공주>는 망자천도의례인 진오기굿에서 연행되며 시기로 보아서 진진오기와 묵은 진오기로 갈라지고, 굿의 규모에 따라서 열새남, 원새남, 천근새남, 쌍계새남 등으로 구분된다. <바리공주>가 연행되는 말미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말미를 드릴 때는 바리공주의 복색과 도구가 각별하다. 만신의 머리에 큰머리를 얹고서 은하몽두리를 입고, 말 위에 앉아서 대신칼, 부채, 한삼 등을 꽂아둔 장구를 비스듬히 세운다. 망자의 신체를 상징하는 넋전과 망자의 옷을 돛자리 위에다 깔고서 덮은 돛삼이 앞에 놓이고 말미상 앞에는 망자에게 바리공주의 일생을 들려줄 만신이 앉는다. <바리공주>는 말미드리는 형식으로 독자적인 연행 형식을 갖추고 있다. 궁편을 방맹이로 두드리면서 방울을 흔들고 구체적인 연행형식은 자유리듬으로 되어 있으며, 호흡에 적합하도록 방울을 흔들고 방맹이로 궁편을

57) 홍태한(2004), 『바리공주 전집 4권』, 민속원, p.25.

58) 김헌선(2011), 『서울 진오기굿-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p.p.93-96.

두드리는 것으로 된다. <바리공주>의 일생을 노래하고 난 뒤에 이어서 세발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 제금을 치고 바리공주의 일생을 들으면서 말미살에 스쳐 지나간 망자의 넋이 남긴 자취를 재가집과 만신이 함께 확인한다. 말미는 산 사람에게는 삶의 경건한 자취를 되돌아보게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바리공주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저승의 시왕에게 이르렀음을 전하도록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절차이다.

<바리공주>와 진오기굿의 관계를 묶은진오기굿과 진진오기굿을 통해 살펴 보았다. <바리공주>가 현대에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오기굿은 그 가치에 비해 연구 성과가 많은 것은 아니다. 홍태환과 김현선의 연구를 통해 진오기굿과 <바리공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무가 교육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소중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오기굿에 나타난 연극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오기굿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격의 연출에 의해 무당을 주연으로, 재가집을 조연으로 두고, 단역에 악사, 이 외의 망자들의 특별 출연으로 다양한 무복과 음식들을 소품으로 한 한 편의 연극이라고 볼 수 있다. 진오기굿의 본래의 목적은 망자가 저승길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떠나간 망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진오기굿은 망자가 떠나가는 모습과 극락왕생을 하는 모습 등을 한 편의 연극처럼 재가집에게 보여주어 재가집이 망자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삶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sup>59)</sup>

무당에 의해 서사무가<바리공주>구송이 끝이 나면 이어서 베가르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진오기굿이 가진 연극적인 효과를 더욱 고조시킨다. 베를 양쪽으로 가르는 무당을 보면서 재가집은 망자가 완벽하게 저승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뒷영실도 놓칠 수 없는 연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망자가 저승으로 천도했으며, 말미상의 쌀을 통해서 재가집도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망자의 혼은 다시 살아있는 이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완벽하게 천도 의식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관객에 불과했던 재가집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가 다시 관객의 입장이 되었다가를 반복하며 조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주연인 무당과 함께 한 편의 연극을 이끌어나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악사는 자신의 반주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적절히 빠져주며 일종의 방관자적 입장을

59) 홍태환(2004), 『서울 진오기굿』, 민속원, p.50.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재거리에서는 진오기굿판에서 단순히 반주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의 춤을 이끌어 내고 굿의 빠르기를 조절하기도 하는 등 진오기굿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up>60)</sup>

각 개인이 이승에서 살아 간 이야기가 모두 한 편의 연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죽음에는 사연이 있고 그러한 사연과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의 조합과 이들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무당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연극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 2. <바리공주><sup>61)</sup>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 1) 1차시 교수·학습 방법-이론적 접근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하)에 수록된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제재로 하여 올바른 무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해당 교과서의 활동을 재구성하여 수행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설정하고 있다.


<바리공주>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총 2차시로 구성하며, 평가 방법으로는 수행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은 무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며 수업계획의 핵심만을 담은 약안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무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사는 학습자의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안을 활용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시해야 한다.

1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대단원	2. 한국 문학의 이해	소단원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바리공주	차 시	1/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해한다.</li> <li>· 구비문학의 갈래를 이해한다.</li> <li>· &lt;바리공주&gt;의 갈래와 성격을 이해한다.</li> </ul>				
학습	교 사		학 생		

60) 앞의 책, p.p.54~55.

61)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에서는 경기 오산 배경재본을 수록하면서 무가명을 <바리데기>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앞의 채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리공주>가 정확한 무가명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바리공주>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한다.

자료	PPT, 수업지도안, 교과서		교과서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도입 (5분)	<p>동기 유발</p> 	<p>▶인사한다. ▶동기 유발<sup>62)</sup></p> <p>(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구비문학에 대한 물음과 함께 삽화를 제시한다.)</p> <p>▶학습 목표 제시 -한국 문학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p>	<p>▶인사한다</p> <p>-구비문학과 기록문학 기록문학은 한문기록문학, 국문기록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구비문학은 말로써 이루어지고 전승되는 문학이다. -민요, 설화, 판소리, 민속극, 무가 등이 있다</p> <p>▶학습 목표 인지 ·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 구비문학의 갈래를 이해한다. · &lt;바리공주&gt;의 갈래와 성격을 이해한다.</p>				
전개 I (20분)	<p>내용 이해</p>	<p>▶한국문학의 개념 이해하기 -한국 문학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한국 문학은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를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이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 해외에 이주한 한국인의 한국어 창작 문학과 남북의 문학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p> <p>▶한국 문학의 영역 이해하기 (PPT를 활용하여 내용 제시) - 전승방식에 따른 분류</p> <table border="1" data-bbox="460 1696 801 1757"> <tr> <td>구비문학</td> <td>말로 전승된 문학</td> </tr> <tr> <td>기록문학</td> <td>문자로 전승된 문학</td> </tr> </table> <p>-기록한 문자에 따른 분류</p>	구비문학	말로 전승된 문학	기록문학	문자로 전승된 문학	<p>-해외에 있던 북한에 있던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작품을 썼다면 한국 문학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p>
구비문학	말로 전승된 문학						
기록문학	문자로 전승된 문학						

		<table border="1" data-bbox="463 282 807 335"> <tr> <td>한문문학</td> <td>한문으로 기록한 문학</td> </tr> <tr> <td>국문문학</td> <td>국문으로 기록한 문학</td> </tr> </table> <p>▶ 구비문학의 갈래 이해하기 -설화(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탈춤, 판소리, 민속극 등이 있다.</p>	한문문학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	국문문학	국문으로 기록한 문학	
한문문학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						
국문문학	국문으로 기록한 문학						
<p>전개 II (20분)</p>	<p>내용 이해</p>	 <p>▶ 무가에 대해 생각하기<sup>63)</sup> -사진을 보며 무당과 굿 그리고 무가의 친연성을 토대로 자유로운 생각들을 말 할 수 있도록 한다.</p> <p>▶ 서사무가&lt;바리공주&gt;의 갈래 이해하기 -무가는 무속의식에서 무당이 굿을 하며 부르는 주술적인 기능을 가진 노래이다. -문학적 관점에서 무가를 분류하면 서사무가·희곡무가·교술무가·서정무가로 나뉜다. -서사무가는 ‘본풀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속신화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서사물이기 때문에 구비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다.</p> <p>▶ 서사무가&lt;바리공주&gt;의 성격 이해하기 &lt;한국민속대백과사전-진오기굿 <a href="http://folkency.nfm.go.kr/mai">http://folkency.nfm.go.kr/mai</a></p>					

		<p><a href="#">n/main.jsp</a> -진오기곳의 사진과 말미에 구송되는 바리공주의 음성 파일을 활용하기&gt;</p> <p>-진오기곳과 &lt;바리공주&gt;의 관계 설명하기</p> <p>(<u>진오기곳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망자천도곳이며,</u>  <u>서울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 이 진오기곳의 굿거리는 &lt;주당물림-부정청배-가망청배-불사-산-조상-대안주-성주-창부-뜬대왕-사재삼성-말미-도령돌기-상식-베가르기-뒷영실-뒷전&gt;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저승으로 떠나는 이를 인도하는 신격인 바리공주의 일대기가 구송되는 말미가 구송되고 이것이 끝난 뒤 무당이 바리공주가 되어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거리인 도령을 돈다)</u></p> <p>▶ &lt;진오기곳&gt;에 나타난 연극적 요소 이해하기</p>	
정리 (5분)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p>▶ 한국문학의 개념과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p> <p>▶ 구비문학의 갈래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p> <p>▶ 서사무가&lt;바리공주&gt;의 갈래와 진오기곳과의 관계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p> <p>▶ 다음 차시 예고</p> <p>-서사무가&lt;바리공주&gt;의 내용 학습하기</p> <p>-&lt;바리공주&gt;의 구비문학적 특성 학습하기</p> <p>▶ 인사한다.</p>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은 2차시에서 진행되는 <바리공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 김문태(2007),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 산하, 삽화를 사용한다.

63)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진오기곳’ 사진을 사용한다.

<바리공주>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서 끝나는 무가 교육이 아닌 한국 문학이란 무엇이며, 한국 문학에는 어떠한 갈래들이 존재하며, <바리공주>는 구비문학 중에서도 무가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리공주>가 진오기굿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신화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1차시 수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문학의 개념과 영역, 구비문학의 갈래를 이해한다.

도입에서는 학습자가 한국문학이 무엇이며, 구비문학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PPT에 제시될 자료는 한국문학과 구비문학에 대해 연상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무관하다. 전개 I에서는 먼저, 한국 문학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서 외국인이 쓴 작품을 우리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와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썼다면 이를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한국 문학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 문학의 영역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 문학에는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있음을 설명하고 기록문학에는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이 있음을 이해시킨다. 다음으로는 구비문학의 갈래에는 설화(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탈춤, 판소리, 민속극 등이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갈래와 성격을 이해한다.

전개 II에서는 먼저, 무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굿의 한 장면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굿과 무당, 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은 무당과 굿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무가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 학습자가 무가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보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서사무가<바리공주>의 갈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화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무가가 서사무가, 서정무가, 희곡무가, 교술무가로 나뉘어지며 <바리공주>는 서사무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무가를 서사무가와 동일시 여기고 그 외의 서정, 희곡, 교술무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무가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무당이나 굿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은 무가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꽤 오래 전부터 무당이 사회적으로 천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서구지향 일변도로 진행된 개화기 이후의 교육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무당은 본래부터 천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가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당당한 문학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래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제사권과 정치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나라 단위의 굿을 주재하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구비시로 노래했다. 이렇게 최고 권력층에서 담당하던 나라굿은 불교가 유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격하되고 무당의 신분도 한 단계 낮아지게 되는데, 이 시기를 무·불습합기(巫佛習合期)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무속은 나라굿의 기능을 불교에게 물려주고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 중심의 제화초복(除禍招福)제의로 전환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신라 말인 8세기말 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성리학이 유입되고 그것이 통치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과정에서 무속은 한층 더 기층화하고, 무당의 신분은 한 단계 더 격하되어 결정적으로 천민(賤民)으로 전락했다. 그 후 손진태를 거쳐 일본인 학자 아키바와 아카바쓰가 무가자료를 채록, 정리했으며 얼마간의 공백기를 거친 후, 1960년대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다.<sup>64)</sup>

이처럼 무가는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구비문학의 한 갈래이다. 비록 국가의 이념을 유학이나 불교에 두기 시작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내려갔지만 그것으로 무가의 가치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지위가 내려간 무당은 나라의 시조를 섬기던 제 본래의 역할을 바꾸어 무속의 신을 섬기며 민간에 흡수되기 시작했다. 민간의 부녀자들과 하층민들은 굿판을 구경하며 자신의 종교적 소망을 빌었고 더불어 오락성과 예술성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무가는 이러한 민간의 소망을 반영해 인간을 대상으로 그 형태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처럼 무가가 성격은 다르지만 상층민과 하층민의 생각을 담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선조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상하층의 폭넓은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 또한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에 영향을 주면서 오랜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도 전해져 온다는 점은 한국 문학을 학습하는데 무가 교육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학습자들에게 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셋째, <바리공주>와 진오기굿과의 관계를 이해시켜야 한다. <바리공주>의 내용보다도 그 내용이 왜 불리어지며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진오기굿은 망자를 천도하는 성격을 지녔다. 망자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진오기굿의 말미거리에서 무당이 들려주는 <바리공주>를

64) 강등학 외 (2002),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p.p.320~323.

들으며 본래 사람이었던 바리공주가 신격을 받아 땅자를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살필 수 있는 것이며 지금도 진오기굿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리공주>가 가진 가치를 알 수 있다. 단순히 <바리공주>의 내용적인 면에만 치우쳐 학습하면 허구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로 그 가치는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바리공주>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진오기굿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수업자료로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에 진오기굿의 사진, 영상 및 말미거리에서 불리어지는 바리공주의 음성 녹음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끝으로 수행 평가를 위하여 진오기굿에 나타나는 연극적 요소를 언급해야 한다. 학습자가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대본을 구성하고 목소리로 연극을 하는 것은 진오기굿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 요소에서 비롯됨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 진오기굿에 나타나는 연극적 요소에 관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 2) 2차시 교수·학습 방법-내용적 접근

2차시 수업에서는 서사무가<바리공주> 내용을 확인하고, 채록현황을 제시하여 지역별로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수행 평가를 위한 안내도 덧붙여야 한다.

2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대단원	2. 한국 문학의 이해	소단원	1.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1) 바리공주	차 시	2/2
학습 목표	·서사무가<바리공주> 내용을 이해한다. ·<바리공주>의 채록현황, 줄거리 등을 통해 구비문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학습 자료	교 사		학 생		
	PPT, 교과서, 기타 자료		교과서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교 사	학 생		
도입 (5분)	동기유발 (문답학습)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학습하기 전, 바리공주는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보자.		-교과서에서 본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 착한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p>&lt;바리공주도&gt;<sup>65)</sup> -바리공주도를 제시하고 바리공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한다.</p>	
<p>전개 I (25분)</p>	<p>내용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바리공주&gt; 내용 학습</li> <li>▶ &lt;바리공주&gt;의 주제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바리공주&gt; 내용 이해</li> <li>▶ &lt;바리공주&gt; 주제 이해</li> </ul>
<p>전개 II (10분)</p>	<p>내용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바리공주&gt;의 채록현황을 이해하고 무가명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다.</li> <li>▶ &lt;바리공주&gt; 줄거리와 인물의 이름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다.</li> <li>▶ 다른 지역의 구술본을 제시하여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p>정리 (10분)</p>	<p>내용 정리 및 평가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바리공주&gt;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li> <li>▶ &lt;바리공주&gt;의 채록 현황과 지역에 따라 무가명이 줄거리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다.</li> <li>▶ 수행 평가 방법,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수행 평가에 반영할 점수에 대해 안내하고 자신이 속한 조의 조원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수행 평가 방법에 대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li> <li>▶ 인사한다.</li> </ul>	다.
--	---	----

2차시의 도입에서는 ‘바리공주도’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바리공주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재구성한 현대의 작품들은 바리공주의 모습을 제각기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을 접하게 되는 학습자가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 바리공주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리공주도’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의식하고 있는 바리공주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더불어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보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바리공주도’의 모습 또한 허구에 불과하므로 바리공주의 여러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정리 I에서는 <바리공주>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에 제시된 <바리공주>는 III장과 IV장의 ‘3.<바리공주>를 활용한 수행 평가 실례’에서 해당 내용을 수록하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바리공주> 내용을 학습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기 보다는 교사 주도로 생소한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전체 줄거리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 학습자는 대본을 구성하기 위해 바리공주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다시 꼼꼼하게 읽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바리공주>의 주제에 대해서는 효 의식,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무조신으로의 좌정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바리공주>를 통하여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유도하여 ‘이타적인 삶, 가부장사회의 여성의 인식 대변’ 등 다양한 주제들을 찾도록 지도한다. 또한 진오기긋의 특징과 연관지어 <바리공주>의 주제를 생각해보도록 하여 정형화된 주제를 주입하는 식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정리 II에서는 <바리공주>의 채록현황을 살펴보고 <바리공주>가 전승되고 채록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I장에서 제시한 채록 현황 자료를 PPT로 제시하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승되고 채록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여기서 구비문학적 특성에 따라 무가를 부르는 구송자와 이를 받아 적어 채록한 채록자가 다르게 적혀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

65) 조선민화박물관 <바리공주도>

를 돕도록 한다. 또한 무가명이 <바리공주>외에도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해주어야 한다.

채록현황을 살펴 본 후에는 지역별로 줄거리가 조금씩 다름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 또한 II장에서 제시한 북한지역 및 서울·인천·경기·충청도 지역 <바리공주> 서사단락과 동해안·경상도 지역 및 전라도 지역 <바리공주> 서사단락을 PPT로 제시하여 공통된 줄거리와 차이가 나는 줄거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의 <바리공주> 구술본을 제시하여 단순히 지역별로 다르게 전승되었다는 사실을 표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III장에서 제시한 2009개정 교육과정 창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복순 구술본과 지학사(권)에 수록된 평택 노재웅 구술본이 있다. 작품은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홍태한의 『바리공주 전집』에 수록된 구술본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교사는 <바리공주>의 줄거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II장에서 제시한 표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명칭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습하고 있는 <바리공주> 작품의 인물의 명칭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정리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재점검하고 수행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수행 평가 방법과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수행 평가 점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수행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마련하여 나누어주도록 한다. 교사의 재량으로 임의로 조를 구성하거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조를 구성한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조를 구성할 경우, 친한 사이끼리만 학습하게 되어 어느 조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습자는 교사가 임의로 조를 지정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의 재량으로 조를 구성하되, 단순히 번호 순서대로 조를 정하는 방법이 아닌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사다리타기’나 ‘룰렛’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수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 3) 수행 평가의 방법

수행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행 평가의 개념과 방법, 교육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학 평가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행 평가의 개념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행 평가는 “학생 스스로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다.<sup>66)</sup>

수행 평가는 문학 영역에서 수행성이 두드러지며 동시에 의미있는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행 평가의 내용요소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준거를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는 평가준거가 판단에 이르기까지 타당성·공정성·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계열화하는 안목이 필요하며 그 계열성을 분석하면 교과서 단원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활동(전략)과 ‘지금 여기에 내 학생들’에게 맞추어 실시하는 수행평가의 활동(전략)을 연결시킨다. 이때 교과서의 내용을 수행평가 활동(전략)으로 바꾸어 일련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sup>67)</sup>

문학 수행 평가에서는 교사평가, 학생평가,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피드백 할 수 있다. 교사평가는 학생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학생이 잘하는 점과 미흡한 점을 판단해줄 수 있다. 학생 상호평가는 학생이 한 활동에 대한 소집단 토의형태를 띤다. 자기평가는 자신이 한 활동에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현 수준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활동에 전이를 돕는다.<sup>68)</sup>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학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다.<sup>69)</sup>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 ‘문학’의 평가 방법에서는 (1)은 공통 교육과정 ‘국어’ 과목 ‘문학’ 영역과의 방법적 연계를 강조하였고, (2)~(6)은 문학 평가의 유의점과 방법들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7)~(9)는 문학 평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문학 평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평가의 유의점과 방법들을 예시한 (2)~(6)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66) 김대행(201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465

67) 국어교육미래열기((2010), 『국어교육학개론 제3판』, p.p.516~518

68) 위의 책, p.p.518~519.

69)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p.p.294~296

(2)	‘문학의 위상’에 관한 평가는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선택형과 서술형, 수행 평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3)	문학 작품의 수용은 창의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선택형·서술형 평가와 함께 발표, 관찰, 질문, 비평문 쓰기, 과제 수행(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4)	문학 작품의 생산은 창의성과 완결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작품의 구성 요소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데 치우치지 말고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문학 작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의 수준과 경험의 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6)	‘문학의 삶’에 관한 평가는 문학 경험의 질·양과 문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관찰, 면담, 점검표(체크리스트), 자료철(포트폴리오),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문학의 위상’ 영역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평가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이해 정도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사무가<바리공주>가 주로 문학의 위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수행 평가 방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수행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활동2] 굿판에서 부르는 무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바리데기’가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보자.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문자를 통해 기록물로 전달되는 문학이 아니라, 입을 통해 말로 전달되는 문학이다. 이러한 구비 문학은 문자를 통한 기록 문학의 원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활동4] 4명이 한 모듬을 만들고 다음의 방법으로 모듬 활동을 해보자.

<방법>

- ① 첫 번째 친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친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② 이야기를 전달받은 친구는 다시 오른쪽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③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은 친구는 그 이야기를 정리한다.
- ④ 모듬원이 모여 자신이 전달한 이야기가 친구가 기록한 이야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해 본다.

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친구들과 토의해 본다.<sup>70)</sup>

해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활동2와 활동4를 재구성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의 활동은 단순히 학습자끼리 이야기를 전달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구비문학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굳이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학습하지 않더라도 구비문학의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의 형태이다. 이처럼 현재의 무가 교육은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학습하고도 줄거리와 주제에 국한된 활동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고 구비문학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식의 활동이나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작품과 비교해가며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앞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처럼 구비문학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무가를 이해하며, 무당과 굿, 무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굿에서 소용되었던 <바리공주>를 학습한다면 활동도 그와 적합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상의 변화	구비문학의 성격 이해하기	긍정적인 효과
무당	진오기굿에서 <바리공주>를 구송한다.	재가집의 마음에 위안
학생	목소리로 <바리공주>를 연극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이와 같이 특별한 자격을 지닌 무당이 진오기굿의 말미에서 <바리공주>를 불러 재가집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면,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무당을 통해서 <바리공주>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왔다면, 학생들이 이를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굿은 앞에서도 말했듯 특별한 자격을 지닌 무당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위이기에 이를 학생이라는 대상에 맞춰 굿을 연극으로 바꾸어 체험해보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진오기굿에 나타난 연극적 요소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연극으로 재구성할 때 목소리로 하는 연극<sup>71)</sup>을 수행

70) 조정래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p.100.

71) 장화목(2011), 「감정이입 기반 듣기 수업 활동의 효율성: 챗터복과 목소리 연극 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p.32에서는 목소리 연극(standing theater)이란, 학습자들이 책을 읽거나 크게 읽혀지는 책을 들고 연극으로 공연하는 기법(Worthy,2005)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소리 연극'은 타 교과와 교육적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어교육에서 '목소리 연극'이라는 용어를 교육적 용어로 정립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목소리로 진행되는 연극' 정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평가의 방법으로 고안하고자 하는 것은 무가가 지니고 있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함이 크다. 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하는 연극은 기존의 연극이 가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학습자는 <바리공주>를 활용한 2차시 수업을 토대로 짧은 대본을 구성한다. 이때 대본을 구성하기 위한 연극적 장치에 많은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며 조별로 자유롭게 대본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시간은 15분~20분으로 제한을 주고조를 구성할 때는 등장인물의 수를 고려하여 7-8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급당 인원을 40명으로 가정한다면 약 5개의 모둠이 구성된다. 목소리로 하는 연극을 녹음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비문학의 취지를 살려 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안내하고, 제출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카페나 블로그에 조별로 활동한 내용(대본,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도록 한다. 이때, 조원이 맡은 역할을 꼼꼼하게 기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활동 내용을 올리는 날짜를 정하고 그 후에 하루의 시간 동안 다른 조의 활동을 확인하고 자신의 조별 활동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바리공주>가 무당에 의해 구송되는 만큼 각 지역별로 서사구조가 조금씩 다른 구비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학습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판을 해당 학급별로 나누고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한다면 각 학급의 활동 결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 <사진1-인터넷 카페 활용하기>



제출된 내용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표>

평가 요소	점수	
1. 대본에 <바리공주>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가?	기본 틀을 제시하되 등장인물과 줄거리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더 하였다.	2점
	<바리공주>의 등장인물과 줄거리의 기본 틀이 제시되었다.	1점
	<바리공주>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0점
2.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목소리로 연극을 잘 구연하였는가?	목소리, 음향효과 등을 활용하여 연극을 잘 구연하였다.	2점
	연극적인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대본을 그대로 읽는 식의 구연을 하였다.	1점
	제출하지 않았다.	0점
3. 조별로 협동이 잘 이루어졌는가?	7~8명의 조원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협동을 이루었다.	2점
	특정인에게 역할이 집중되었다.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조원이 2명 이상이다.	1점
	조별 학습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협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0점
4. 제출기한을 지켰는가?	제출 기한을 정확하게 지켰다.	2점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했다.	1점
	제출하지 않았다.	0점
5. 다른 조의 활동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가?(댓글쓰기)	자신과 다른 조의 활동에서 발견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 (자신의 조를 제외한 모든 조에 댓글을 써야 한다.)	2점
	자신의 조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조와 비교, 대조하지 않았다.	1점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댓글을 쓰지 않았다.	0점

수행 평가의 총점은 10점으로 하며 평가요소는 5가지로 분배한다. 각각의 요소를 2점, 1점, 0점으로 나누어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평가 요소에는 <바리공주>를 대본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습자가 본래의 기본적인 틀 이외에 창의성을 가미하였다면 2점, 본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그대로 옮긴 듯 대본을 구성하였다면 1점을 부과한다. 이는 <바리공주>를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에 점수를 더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평소 요소에는 <바리공주>를 목소리로 연극하였을 때 구비문학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소리와 기타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그 특성을 잘 발현하였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목소리만으로도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특색을 살려 구연하였다면 2점, 대본을 그대로 읽는 식의 연극을 구연하였다면 1점, 제출하지 않았다면 0점을 부과한다. 우리 선조들은 굿판을 구경하며 자신의 종교적 소망을 빌었고 더불어 오락성과 예술성까지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극으로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오락성과 예술성을 첨가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조별로 협동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여 조별로 모든 인원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2점, 특정 조원에게 역할이 집중되었다거나 2명 이상의 조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한다. 활동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된 조가 있다면 0점을 부과한다. 조별로 진행하는 수행 평가인 만큼 협동의 요소도 분명하게 확인해주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제출기한을 지켰는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지켰다면 2점, 지키지 못하였다면 1점, 제출하지 않았다면 0점을 부과한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조와 자신이 속한 조의 활동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댓글로 쓰는 활동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조를 제외한 4개의 조의 활동을 확인하고 자신의 조와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면 2점, 자신의 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의 활동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특정 조에만 댓글을 쓰는 등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1점, 아무런 댓글을 쓰지 않았다면 0점을 부과한다.

모든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해당 점수를 카페에 공개하고 평가 요소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덧붙여 잘한 점에는 격려의 댓글을 써주고 부족한 점에는 무엇이 부족하였는가를 설명하여 평가 후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바리공주>를 활용한 수행 평가 실례

#### 1) 대본 만들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목소리로 연극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학급 전체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냄에듀 교과서를 문학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가 많지 않았으며, 현 입시 체제에 과중한 학업으로 인하여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의 상황과 더불어 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를 채택하여 수업하고 있는 S여고의 2학년 학생 10명의 도움을 얻어 2개의 모둠을 꾸려 수행 평가를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총 2차시에 걸쳐서 진행될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한 수업은 교실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생각하면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작품 설명 이전에 교사는 1차시에서 구비문학과 무가에 대한 개념과 갈래, 무가명, 곳에 관한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의 실험에 참여한 1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1차시에 진행되어야 할 내용을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하였다. 2차시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학습하게 된다. 실험에 참가한 10명의 학생들은 2012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미 <바리공주>에 관한 수업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내용을 재점검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활동을 변형하여 수행 평가의 형태로 대본을 구성하고 목소리로 연극을 해보도록 하였다.

####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 (하)의 <바리공주> 수록 내용]

##### 앞부분 줄거리

옛날 블라국 오구 대왕이 길대 부인과 혼인하여 십 년이 지난 후 연이어 여섯 명의 딸을 낳는다. 아들을 낳기 위해 노장 스님의 말에 따라 백일 기도를 드려도 또 딸을 낳자, 오구 대왕은 부인을 시켜 일곱 번째 딸을 버린다. 버려진 딸 바리데기는 산신령에게 구출되어 양육된다. 바리데기가 십오 세가 되었을 때, 오구 대왕은 병이 들고 온갖 치료를 다해도 낫지 않는다. 이때 노장 스님이 와서 서천 서역에서 약수를 구해 와야 대왕을 살릴 수 있다고 알려 준다. 부인이 여섯 명의 딸에게 약수를 구하러 갈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못 가겠다고 한다. 꿈속에서 노장 스님의 계시를 받은 부인은 직접 들과 산으로 찾아다닌 끝에 결국 바리데기를 만난다. 집으로 돌아온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약수를 구하러 서천 서역으

로 떠난다.

철공주 불러내어, 부모 소양 가려느냐?

국가에 은혜와 신세는 안 졌지만은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 있던 공으로  
소녀 가오리다.

거동 시위로 하여 주라, 구수덩 싸덩을 주라?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가겠나이다.

사승포(四升布) 고의적삼, 오승포(五升布) 두루마기 짓고

쌍상토 짜고, 세 패랭이 닷죽 무쇠 주랑 짚으시고

은 지계에 금줄 걸어 매이시고

양전마마 수결(手決)받아, 바지근에 매이시고

여섯 형님이여, 삼천 궁녀들아

대왕 양 마마님께서 한낱한시에 승하하실지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거동(因山舉動) 내지 마라.

양전마마께 하직하고, 여섯 형님께 하직하고

결문 밖을 내달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할너라

……중략……

그대 깃던 물 약려수이니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 베던 나무는 살살이 삐살이니 가지고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물 구경도 경이 없고.

뒷동산의 꽃구경하고 가오, 꽃구경도 경이 없소.

전에는 혼자 흠아비로 살아 왔거니와

이제는 여덟 흠아비가 되어, 어찌 살라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아기는 걸게 하고, 어린 아기는 업으시고

무상 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쫓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

뒷부분 줄거리

바리데기가 약수와 나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다. 급히 상여를 막아 궁 안으로 되돌려 보내고 약수와 나무로 부모를 되살린다. 임금은 바리데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바리데기는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떠올리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당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궁궐을 떠나 무당의 조상인 무조신(巫祖神)이 된다.<sup>72)</sup>

실험은 참가자가 총 10명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5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2모둠으로 편성하였다. 수행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의 제약은 두지 않았으며, 교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대본을 구성하고 녹음하도록 지시했다.

<사진2-모둠별로 대본을 만드는 모습>



72) 조정래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p.p.94~99.



(등장인물: 사방에 뚝이 있고 땅가운데 무상신선이 서있다. 바리데기가 올라와 삼배를 드린다.)  
 (석가세존, 정상국은)

무상신선: 너가 사람이나 귀신이나 짐승도 못 들어오는 끈을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서 왔나.  
 바리데기: 저는 국왕의 세자로 부모의 봉양을 나왔습니다.  
 무상신선: 부모 봉양을 하러 왔는데 물과 나무를 가져왔나.  
 바리데기: 매우 굶고 바쁘게 오나라 잊었습니다.  
 무상신선: 물 3년 더 주고, 나무 3년 베어줘라.  
 물 3년 더 주고,  
 불 3년 베어 주고,  
 9해가 지난다.

무상신선: 그대는 앞에서 보면 여자군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보이니 나하고 결혼하여  
 7아들을 낳아라.

바리데기: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 봉양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하겠습니다.  
 (결혼하여 7아들을 낳는다.) 부모의 정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봉양이 중요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온 그릇, 온수저가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님께 한낱 양식에 돌아가는게 보명된

무상신선: 너가 갖던 물이 약수이니 향아리에 얹아가라.  
 너가 베던 나무는 뼈와 살을 살리는 나무이니 가져가라.  
 물 구경 좀 하고 가오.

바리데기: 경황이 없습니다.  
 무상신선: 뒤 동산 꽃구경 좀 하고 가오.  
 바리데기: 경황이 없습니다.  
 무상신선: 이제 8아들의 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7아들 데리고 가오.  
 바리데기: 그것 또한 부모 봉양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아기는 견제하고 작은 아이는 없애다.)  
 무상신선: 고향이 가는 건 어떻게 할꼬.  
 바리데기: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데 그것 또한 부모 봉양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명이 같이 간다.

1절: 바리데기가 돌아가는 데 땅과 땅이 이미 죽어남여가 나가지고 있었어요.  
 굶고 남여를 먹고 약수와 나무로 부모를 살렸어요.  
 입은 바리데기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바리데기는 힘든 백성들을 떠돌리며 이들을 구제하는  
 무당이 되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후날 목양의 좌장인 무당이 되었어요.

1조가 제출한 대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 바리데기, 오구대왕, 무상신선, 석가세존, 길대부인, 노장스님, 무녀, 해설

해설: 옛날 옛날에 블라국 오구대왕이 길대부인과 혼인하여 십 년이 지난 후 연이어 6명의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 노장스님의 말에 따라 백일기도를 드려도 또 딸을 낳자, 오구대왕은 부인을 시켜 일

곱 번째 딸을 버렸어요. 버려진 딸 바리데기는 산신령에게 구출되어 키워졌어요. 바리데기가 15살이 되던 해에 오구대왕은 낫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이 때 노장스님이 와서 서천 서역에서 약수를 구해 와야 살 수 있다고 알려줬지만, 6명의 딸 모두 못 가겠다고 했어요. 꿈속에서 노장스님의 계시를 받은 부인은 직접 바리데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떠났어요.

길대부인:(조심스럽게) 부모 봉양...갈 수 있겠니?

바리데기:(공손하게) 낳아주신 은혜로 소녀가 가겠습니다.

길대부인: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마를 타고 가겠니?

바리데기: 말 한 필만 타고 가겠습니다.

(바리데기 남장을 함)

바리데기: 언니들, 삼천궁녀들, 부모님께서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실지라도 제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들 안녕히계세요.

(월문 밖으로 나간다. 한숨 쉬면서) 어디로 가야되지? 난 누구....여긴 어디...

무녀: 자! 귀신들아. 바리데기를 따라가면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리데기가 지팡이를 한 번 짚으면 천리를 가고, 두 번 짚으면 이천리를 가고, 세 번 짚으면 삼천리를 간다. 꽃이 흩날리고, 새가 날아가며 새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달이 뜬다.)

(석가세존, 지장보살, 아미타불 등장해서 설법을 읊는다. 바리데기가 다가가서 9번 절한다.)

석가세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야, 날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을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리데기: 저는 국왕의 세자입니다. 부모 소양을 나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알려주세요,

석가세존: 국왕에게 7공주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세자가 있다는 말은 처음이구나. 네가 버려졌을 때 내가 너를 길렀건만 험난한 길을 어떻게 가려하느냐,

바리데기: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석가세존: 라화를 즐 테니 큰 바다가 나오면 흔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될 것이다.

(높은 가시나무 울타리가 나오고 바리데기가 라화를 흔든다. 귀신들이 뛰쳐나온다. 지옥문이 열리고 바리데기가 귀신들과 함께 들어간다.

지옥의 왕이 귀신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무녀: 귀신들아! 바리데기를 따라가면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고 한 가운데 엄청 크고 험상궂은 무상신선이 서 있다. 바리데기가 물러나 삼배를 드린다.)

무상신선: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짐승도 못 들어오는 곳을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서 왔냐?

바리데기: 저는 국왕의 세자로 부모의 봉양을 나왔습니다.

무상신선: 부모 봉양을 하러 왔는데 물 값과 나무 값은 가져왔냐?

바리데기: 매우 급하고 바쁘게 오느라 잊었습니다.

무상신선: 물 3년 떼주고, 불 3년 떼주고, 나무 3년 베어줘라.

(아홉 해가 지나간다.)

무상신선: 그대는 앞에서 보면 여자로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보이니 나하고 결혼하여 일곱 아들을 낳아라,

바리데기: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 봉양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일곱 아들을 낳는다.)

바리데기: 부부의 정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봉양이 늦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은그릇, 은수저가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신게 분명합니다.

무상신선: 네가 깃던 물이 약수이니 항아리에 담아가라. 네가 베던 나무는 뼈와 살을 살리는 나무이니 가져가라. 물 구경 좀 하고 가오.

바리데기: 경황이 없습니다.

무상신선: 뒷동산 꽃구경 좀 하고 가오.

바리데기: 경황이 없습니다.

무상신선: 이제 여덟 홀아비가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일곱 아들을 데리고 가오.

(큰 아기는 걸게 하고, 작은 아이는 업는다.)

무상신선: 같이 가는 건 어떻게겠소.

바리데기: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던데 그것 또한 부모 소양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9명이 함께 간다.)

해설: 바리데기가 돌아가는데 왕과 왕비는 이미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었어요,

급히 상여를 막고 약수와 나무로 부모를 살렸어요. 임금은 바리데기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 하지만, 바리데기는 힘든 백성들을 떠올리며 이들을 구제하는 무당이 되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훗날 무당

의 조상인 무조신이 되었어요.

2조가 제출한 대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 오구대왕, 길대부인, 노장스님, 석가세존, 무상신선, 무녀, 여섯 공주

해설: 옛날 불라국 오구 대왕이 길대 부인과 결혼해서 십 년이 지난 후에 여섯 명의 딸을 얻어 낳았습니다.

오구 대왕: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노장 스님: 그럼 백일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딸을 낳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소리)

오구 대왕: 딸이냐?

노장 스님: 또 딸입니다.

오구 대왕: 부인, 당장 갖다 버리시오.

해설: 버려진 딸은 산신령에게 구출이 되어 양육됩니다. 바리데기가 15살이 되던 해, 오구 대왕은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온갖 약을 다 써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노장 스님: 오구 대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서천 서역에서 약수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길대 부인: 그래? 그럼 여섯 공주들아, 너희 중 누가 서천 서역에 다녀올래?

여섯 공주: (함창) 싫어요~안 가요~못 가요~

해설: 이때 꿈속에서 노장 스님의 계시를 받은 부인이 직접 들과 산을 찾아다니며 바리데기를 찾아냅니다.

길대 부인: 바리데기야, 네가 약수를 구하러 서천 서역에 가주겠니?

바리데기: 국가에 은혜 입은 것도 없고 신세 진 것도 없지만 어머니 배에 열 달 있었던 공으로 소녀 갔다 오겠어요,

길대 부인: 그래? 그럼 군사들이나, 가마를 준비해줄까?

바리데기: 아뇨, 혼자 말 타고 가겠어요.

해설: 바리데기가 남장을 하고 무쇠 지팡이를 들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바리데기: 여섯 언니들아, 삼천 궁녀들아, 대왕 양 माम님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돌아가시더라도 나 돌아올 때까지 상여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해설: 바리데기가 인사를 하고 결문 밖으로 나오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너: 먼저 죽은 사람이든 나중에 죽은 사람이든 어느 망자나 남장하고 떠나는 바리데기를 따라가면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바리데기가 지팡이를 한 번 짚으면 한 천리를 가고, 두 번 짚으면 이 천리를 가고, 세 번 짚으면 삼 천리를 갑니다. 꽃이 흩날리고, 새가 날아가며 새소리가 들려오고 해가지고 달이 솟았습니다.

이때, 석가세존,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설법을 읊고 바리데기가 앞에다가 가서 9번 절을 올립니다.

석가세존: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네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리데기: 극왕의 세자인데, 부모 소양 나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부처님 은덕으로 길을 좀 알려주세요.

석가세존: 극왕한테 칠공주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세자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너를 버렸을 때, 내가 얼마 안 남은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험한 길을 어찌 가려고 하나?

바리데기: 가다가 죽더라도 갈래요.

석가세존: 그럼 비단으로 만든 꽃을 줄 테니 가다가 큰 바다가 나오면 이것을 흔들어서, 그럼 육지로 변할 것이다.

해설: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진 성에서 라화를 흔드니 귀신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닙니다. 칼날이 산을 이룬 지옥과 온갖 지옥 문을 열고 보니 저승에서 재판하는 열 명의 대왕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을 바라보니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얼굴을 쟁반만하고 눈은 등잔만하고 코는 즐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솔뚜껑만하고 발은 석자 세 치인 무상신선이 서 있습니다.

무상신선: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바리데기: 나는 극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습니다.

무상신선: 부모 봉양 왔으면, 물 값이랑 나무 값은 가져왔냐?

바리데기: 바쁘게 오느라 잊었습니다.

무상신선: 그래? 그럼 물 3년 길러 주고, 불 3년 때어 주고, 나무 3년 베어 줘.

해설: 그렇게 9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무상신선: 9년을 살다보니 당신, 앞에서 보면 여자 몸이고 뒤에서 보면 극왕의 몸으로 보이는 구려,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을 낳아줄 순 없냐?

바리데기: 그것도 부모 보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해설: 그렇게 일곱 아들을 낳아주고 살아가는데 바리데기는 자꾸만 부모 보양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리데기: 꿈에서 은쟁반과 은수저가 부러져 보이던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무상신선: 당신이 깃던 물이 약수고 베던 나무가 살이랑 뼈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가져가요. 가기 전에 앞바다 물구경 좀 하고 하지.

바리데기: 경황이 없어요.

무상신선: 그럼 뒷동산의 꽃구경은?

바리데기: 경황이 없다니깐요.

무상신선: 혼자 홀아비로 살다가 이제를 여덟 홀아비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거야. 일곱 아기 데리고 가!

바리데기: 그것도 부모 소양이면 그렇게 할게요. 큰 아가들은 걸어가고, 어린 아가는 등에 업혀라.

무상신선: 나도 당신 뒤를 따라가면 어떨까?

바리데기: 아내는 남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니, 그것도 부모 소양이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되어 돌아가는군요.

해설: 급하게 바리데기가 약수와 나무를 가지고 왔지만 역시나 꿈처럼 왕과 왕비의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리데기: 멈춰! 다시 상여를 금으로 돌려보내! 아버지, 어머니, 이 약을 드세요.

해설: 바리데기가 가져온 약수와 나무 덕에 왕과 왕비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구 대왕: 바리데기야, 고맙다. 네 소원은 뭐든 들어주마.

바리데기: 저는 제가 만났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당이 되겠어요.

해설: 궁궐을 떠난 바리데기는 무당의 조상인 무조신이 되었답니다.

두 조가 제출한 대본을 살펴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앞부분 줄거리와 뒷부분 줄거리를 그대로 인용한 반면, 2조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앞부분 줄거리와 뒷부분 줄거리도 자신들이 상황을 생각하여 인물 간의 대화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조는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산거동 하지마라’ 라는 부분을 상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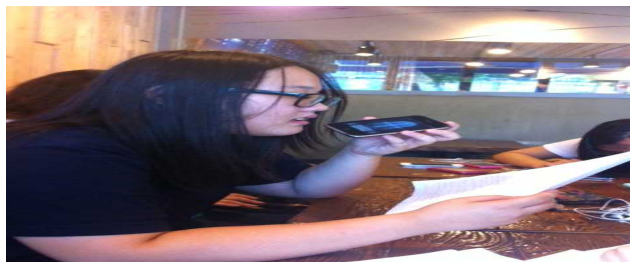
를 내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2조의 경우에는 상여를 내보내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교과서에서 해설 부분에 인산거동은 ‘임금이 죽어 상여가 나가는 것’으로 적혀져 있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당은 곳을 통하여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전달한다고 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바리공주>를 연극 대본으로 재구성하여 목소리로 연극을 해봄으로써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연극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모둠별로 모둠의 개성이 묻어나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무가의 구비문학적 특성을 학습하고 단순히 바리공주의 텍스트를 줄거리 그대로 내용에 집중된 무가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텍스트의 인물의 성격과 상황, 인물간의 관계, 그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정서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더 나아가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서사무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 2) 목소리로 연극하기

다음으로 각 모둠의 개성이 반영된 대본을 토대로 목소리 녹음을 진행하였는데, 녹음에 활용한 녹음기기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고 주로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향 효과를 집어넣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서로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공유하여 음향효과를 내기도 하고, 필요한 소리의 경우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검색해 바로 활용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학습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녹음된 내용들을 오디오북 형태의 스마트기기용 어플로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활동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발전에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진4-목소리로 연극, 녹음하는 모습>



### 3) 평가

수행 평가 실험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닌, 소규모로 진행된 평가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평가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아 그 형식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평가 방법은 <바리공주> 수업 차시를 3차시로 구성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2차시까지 본 수업을 진행하고 난 뒤 수행 평가를 하고 3차시에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가능한 평가 방법이다.

실험에 참가한 2개의 모둠은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대본과 이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제출한 내용을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모여서 청취하고 제시된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학습활동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둠별로 녹음된 내용을 청취하는 시간은 대략 15분정도 소요되었다. (실험에서 소요된 시간은 대본을 구성하는 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를 녹음하는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녹음된 내용을 제출하였을 때는 약 15분정도의 분량이었다.) 평가는 두 모둠의 목소리로 하는 연극을 청취한 후 각 모둠별로 토론의 시간을 거친 후 제시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을 끝난 후, 실험에 참가한 10명의 학생들에게 개개인별로 설문지를 나눠주어 실험의 좋은 점과 개선 점등의 의견을 받았다.

각 모둠별로 제시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 [질문지]

1. 모둠원이 모여서 각 모둠별로 구연한 연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해 본다.
2.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친구들과 토의해 본다.

실험에서는 2개의 모둠에 질문지를 나눠주고 토의할 시간은 약 10분간 제시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토의가 끝난 후, 개개인별로 설문지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실험한 목소리로 하는 연극의 장, 단점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했다.

[질문1] 굿과 서사무가<바리공주>의 관계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었나요?

대답1: 학교에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바리데기? 아, 바리공주가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3개월이 흘러서 그런지 내용도 가물가물했고 그때 그냥 굿에서 부르는 거 정도로 설명을 들어서 굿보다는 바리공주 줄거리랑 주제 같은 걸 중심으로 외웠는데, 굿을 왜 하는 지, 또 굿에서 왜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지를 알고 나니까 더 이해가 쉬웠어요, 사실, 바리공주가 하는 일이 뭔지 몰랐거든요.

대답2: 굿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굿에서 바리공주를 불러 주는 게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해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고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구나, 했어요.

굿을 설명해주는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답3: 굿을 설명해줘서 이해가 높아진 건 맞는데 어차피 굿에 대한 건 수능에 안 나오지 않나? 무가도 잘 안 나오던데.

[질문2]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목소리로 하는 연극으로 구성하였을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대답1: 음, 학교에서 이런 수행 평가를 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활동4번도 안 했어요. 활동은 잘 안 해요. 근데 목소리로 하는 연극은 재밌기는 진짜 재밌었어요. 시험범위라 공부할 때는 등장인물이 벗어나 되는지 각각 무슨 역할인지 뭐 그런 거 생각하기 본다는 줄거리 알고 주제 알고 그런 거 알고 넘어갔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연극을 해본지가 너무 오래라 좋았어요. 근데 실제 수업에서 집에서 해오라고 하면 점수 반영 안 되면 안 할 것 같아요.

대답2: 목소리로 연극을 꾸며보니까 왜 바리데기 바리공주 이렇게 다른지 알겠어요. 2조만 해봐도 목소리가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한 걸 누가 옆에서 적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 다르겠어요. 나빴던 점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는 점? 대본 만드는 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대답3: 저는 이거 녹음한 걸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끝내기 아까울 것 같아요. 만약 교실에서 진짜 한다면 다 모아서 CD라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조는 코믹버전으로 하긴 했는데, 재네 조는 완전 진짜 연극처럼 했더라고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나 생각하고 들으니까 지루하지도 않았고 같은 반 친구끼리 하는 거라 저 목소리가 누굴까, 진짜 흉내 잘 냈다 싶은 친구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아, 근데 목소리로 하

는 연극이라서 재밌었지 진짜 연극하라고 했으면 좀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린 고2라서...

학생들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교 수업에서는 학습활동을 직접 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수행 평가를 실시하면 이 역시도 직접 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로 목소리로 하는 연극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에 집중한 시간을 지켜본 결과 이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목소리로 하는 연극의 좋았던 점은 다음과 같다.

대본을 구성함으로써 <바리공주>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흥미를 느끼면서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 극과 <바리공주>의 연관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목소리로 하는 연극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학교 상황에서 이를 수행 평가로 활용하기까지는 학교의 상황과 교사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하여 올바른 무가 교육을 고안하기 위해서 먼저, 서사무가의 개념과 <바리공주> 무가의 채록 현황, 각 지역별 서사구조 및 인물의 명칭을 비교해보았다.

다음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무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7차, 2007개정,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국어 교과서 및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주로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무가 교육의 제재로 삼고 있었으며,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금성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상)에 ‘제석본풀이’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천재(김)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하)에 ‘세경본풀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무가<바리공주>는 7차 문학 교과서에는 총 4종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교육과정과 각 문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바리공주의 내용과 주제를 재확인하는 차원의 학습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개정 문학 교과서에는 총 4종의 문학 교과서 중 <바리공주>를 중심 제재로 사용하고 있는 3종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 7차에서의 내용과 주제 확인 차원의 학습에서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발췌해놓은 부분에서도 7차에서는 각 교과서마다 비슷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해놓은 반면, 2009개정에서는 7차와 동일한 부분을 수록하기도 했지만 주로 줄거리로 짧게 요약만 해오던 부분을 수록해놓아 학습자에게 새롭게 다가가려고 노력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학습 활동에서도 기존의 7차와는 다르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유도하거나, 구비문학이 전승되어 온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리공주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역경을 이겨냈으며, 부모를 살려 저승의 신이 되었다’는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된다. 학습자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바리공주는

저승의 신이 된 여성 영웅'으로 요약하여 정의내리고 학습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을 때, 곳과의 연관성은 배제된 채 위와 같은 학습결과로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상당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학습하기 이전에 왜 무당이 곳판에서 서사무가<바리공주>를 불렀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저승의 신이 된 바리공주 내력을 무당이 불러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망자를 위해 진행되는 진오기곳의 성격까지 학습해야만 한다.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자들은 죽은 이를 위해 치러지는 곳의 개념조차도 생소하고 새롭게 받아들여진다. 진오기곳을 학습하고 여기서 서사무가<바리공주>가 구송되는 까닭이 망자를 저승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있는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임을 학습한다면, 서사무가<바리공주>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되는 무가 교육이 아닌 진정으로 무가가 무엇이며, 서사무가가 무엇이며, 서사무가<바리공주>가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무가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오기곳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활용하여 목소리로 하는 연극을 진행하기 위해 진오기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극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곳과 연관시켜 학습하였다면, 학습활동에서 무당이 곳에서 서사무가 <바리공주>를 구송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과정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더불어 바리공주의 내용과 주제를 교사가 알려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습이 아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서사무가<바리공주>를 학습자들이 직접 연극 대본으로 구성해보면서 각각의 인물이 가진 특성과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틀에 박힌 내용과 주제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대본을 구성하고 연극을 꾸미는 과정에서 구비문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무대

에서 진행되는 연극이 아닌 목소리만으로 연극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여 수행평가를 고안하였으며, 각종 녹음 방법을 통하여 녹음된 내용을 청취하며 재해석된 부분을 발견하고 달라진 부분을 통해 무가가 가지고 있는 구비문학적 특성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무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무가 교육의 모습을 서사무가<바리공주>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았다. 본 연구가 시도했던 실험에서 학습자들은 실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목소리로 하는 연극을 진행하고 녹음하여 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무가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진행된 부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연극을 녹음한 것을 오디오북 형태로 만들어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고향에서 무당이 구송하는 <바리공주>를 보며 청중들은 바리공주의 행적에 따라 웃고, 울며 망자를 떠나보내는 슬픈 마음을 위로받는다. 이처럼 고향은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서민층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실험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그 성격은 다르지만 목소리로 연극한 것을 재능기부 하여 어려운 이웃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인환 외, 7차 문학 교과서, 교학사  
권영민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지학사  
김윤식 외, 7차 문학 교과서, 디딤돌  
김윤식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천재  
남미영 외, 2007개정 중학교 국어, 교학사  
민현식 외, 2007개정 고등학교 국어, 신사고  
박경신 외, 7차 문학 교과서, 금성  
박종호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창비  
오세영 외, 7차 문학 교과서, 미래엔(대한)  
이남호 외, 2007개정 중학교 생활 국어, 미래엔  
조정래 외, 2009개정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한계전 외, 7차 문학 교사용 지도서, 블랙박스

### -단행본-

- 강등학 외(2002),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국어교육미래열기((2010), 『국어교육학개론 제3판』  
김대행(201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문태(2007),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비문학』, 산하  
김윤식 외, 7차 문학 교과서, 디딤돌  
김태곤(1966),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김현선(2011), 『서울 진오기곳-بار리공주 연구』, 민속원,  
서대석(1980), 「بار리공주 연구」,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서연호(1997), 『한국 전승연희의 현장연구』, 집문당  
장덕순 외 (2006),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조동일 외 6인(1994), 『한국문학강의』, 길벗

- 홍태한, 김진영 공저(1997), 『바리공주 전집 1권』, 민속원  
 홍태한(1998),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홍태한, 이경엽 공저(2001), 『바리공주 전집 3권』, 민속원  
 홍태한(2002),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_\_\_\_\_(2004), 『서울 진오기굿』, 민속원  
 \_\_\_\_\_(2004), 『바리공주 전집 4권』, 민속원

-논문-

- 김소영(2003), 「〈바리공주〉무가와 〈제석본풀이〉무가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 관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민(2002),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Vol.7  
 김현선(2004), 「특집 : 세계의 여신신화 ;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종교와 문화, Vol.10  
 박현숙(2001), 「무속신화〈바리공주〉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은희(2009), 「여성 영웅신화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바리공주〉, 〈세경풀이〉, 〈도량선비와 청정각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안수연(2008), 「〈바리데기〉에 나타난 여성상의 분석과 교육적 활용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근(2000), 「서사무가에 나타난 저승인식과 그 교육적 가치」,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빈(2006), 「무가 교육의 교육적 효용성 연구-〈바리공주〉와 〈당금애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화목(2011), 「감정이입 기반 듣기 수업 활동의 효율성: 챗터북과 목소리 연극 기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최유권(2002), 「서사무가〈바리공주〉 연구-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숙(1996), 「바리공주 무가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죽음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태환(1997),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narrative myths, Princess Bari**

- Focusing on 7<sup>th</sup>, 2009 revised elective course <Literature> -

**Kim, jee hyun**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of teaching narrative myths focusing on Princess Bari. Furthermore, it schemes out teaching and evaluation methods based on relativities between shamanic dancing Jinogi and Princess Bari and theatrical factors in them that could arouse interest among learners.

First of all, it explain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myths, current situation of selection in school text book, and regional differentials of Princess Bari, in order to lay out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In sequence, i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7<sup>th</sup> curriculum including 2007 and 2009 revised editions of Korean textbook. Under the 7<sup>th</sup> curriculum, text book for junior high second grade (1<sup>st</sup> edition) and for high school education does not include any narrative myths. Exceptionally, one of the elective high school courses, <Literature>, contains the fourth edition of Princess Bari with first edition of Jaesukbonpuli.

According to 2007 revised course, text book for junior high includes second edition of Princess Bari. However, it is not contained as full text but partial for supplement studying. Similarly, First edition of Princess Bari in the high school text is presented as supplementary.

In case of 2009 revised course, 4<sup>th</sup> edition of Princess Bari and the first edition of Seakyungbonpuri are included in <Literature>.

Based on this, it studies the problems of current situation of narrative

myths education and figures out changing method of it.

For researching the method of teaching,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ess Bari and Jinogi, and finds theatrical factors shown in Jinogi. Moreover, it presents second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and evaluation method by making scripts and acting a play only with voice.